

“국민의힘 입당한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철회해야”

민주당 소속으로 2021년 6월 대표발의... 국힘은 반대 기초
“기본 가치 동일해야”
“국힘도 해명을... 그제 지지자들에게 대한 예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회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교계에서는 이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대해 이 의원이 철회 여부 등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분류되는 평등법은 교계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안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표현양상·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교계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조를 보여왔다. 김기현 전 대표는 과거 한 교계 행사에 참석해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작년(2021년), 우리 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이미 정했다. 그 당론은 지금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무리 충청도 표가 중요하고 이합집산이 비일비재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치는 동일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설이 나오던 당시 진정 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성명을 통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주도한 이상민 의원을 입당시켜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조차 내팽개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었다.

이후 이 의원이 입당한 날인 8일, 다시 성명을 낸 진평연은 “이상민 의원이 주장하는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은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 인권과 거짓 평등”이라며 “(이 의원이)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은 개인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입당한 이상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시스

의 입신양명을 위해 철세처럼 처신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중앙실행위원인 제양규 전 한동대 교수는 “이 의원이 가정과 성별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의힘에 들어왔으면, 가정과 성별을 해체한다는 비판을 받는 법안을 그가 발의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주요 당직자들이 다수 채널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혀왔던 만큼, 평등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입법 추진에 앞장서 온 이 의원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지지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

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는 미명 아래 침묵한다면 그것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온 지지자들과 국민, 무엇보다 교계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했다.

권태진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왔으면 국민의힘이 가진 가치관과 노선을 따라야 한다”며 “본인이 대표발의를 했던 평등법은 철회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한편, 8일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평등법(차별금지법)과 관련 “모든 인간이 존엄한 가치를 갖기에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은 전적으로 맞다”며 “국민의힘에서 다른 의원들과 소통해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고 밝혔다.

또 뉴스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를 향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선언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여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데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당장 억지로 통과시키는 건 사회적 발전에 도움 안 되고 정치적 정략용으로만 쓰일새가 있게 된다”고 했다.

▶관련기사10면
김진영 기자

“6·25 당시 임시수도” 이승만기념관 부산추진위 출범

최근 부산에서 발족식... “30억 기금 조성할 것”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 기금조성 부산광역시 추진위원회(이하 부산추진위)가 공식 출범했다. 부산추진위는 최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발족식을 갖고, 범 시민 차원의 기금 조성 활동을 다짐했다. 부산추진위에 따르면 이번 발족은 6.25 전쟁 당

시 부산은 임시수도로서 전세의 승기를 이끌었던 곳인 만큼, 부산 시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부산추진위는 이번 발족을 계기로 기금 조성 및 함께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다양한 준비과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이승만 바로알기 캠페인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홍보활동, 관련 영상물 시청, 전시수도였던 부산의 이승만 관련 역사 찾기, 강연, 포럼, 토크쇼 등 활동을 펼쳐나간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경과보고, 내빈소개, 위임장 인사, 내빈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괄 추진위원장에는 신정택 세운칼강 화장이 추대됐다. 김황식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행사에 참여해 축사로 부산추진위의 출범을 축하했다.

신정택 부산추진위 총괄추진 위원장은 “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계승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그의 정신과 업적을 전승하고, ‘하나로 뭉쳐’ 미래를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우리 추진위는 그 첫 걸음으로 부산에서 30억 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 기금조성 부산광역시 추진위원회 발족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말했다.

김황식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 국가마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 공과는 후손들에게 맡기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해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향 같은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발족식을 가져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신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위가 전

국에서 최초로 부산에서 열려 부산광역시장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장진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 추진위 기금조성 총괄본부장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이번 기념관 건립은 그의 업적을 후세에 전하고 가리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운동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통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한장총, 12일 2024년 신년감사 예배 및 하례회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장총)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2024년 신년감사예배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상임회장 권순용 목사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동회장 오정호 목사가 기도하고, 공동회장 김홍석 목사가 성경봉독을 하며,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새해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공동회장 임병무 목사),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공동회장 이종남 목사) “교회 다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공동회장 최원길 목사) “다음세대의 부흥과 소망을 주시옵소서”(공동회장 이상용 목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공동회장 송동원 목사) 등의 기도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한다. 예배는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된다.

한편 2부 신년하례회에서는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신년사를 전하고, 공동회장 변세권 목사가 폐회기도를 한다.

박용국 기자

8·9호선 석촌역 10초
석촌호수 · 한강을 품은 최고의 입지!

리버레이크 송파
RIVER LAKE SONGPA

계약금 4천만원대!
분양가 5억원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021. 11. 23.
대지 전체 면적 63.7% 사용권 확보
(사유지 면적 4,259.80㎡ 대비 확보면적 2,717.76㎡ 비율 63.7%)

시공예정사 대우건설

석촌역10초역세권 · 35층 한강조망권 · 잠실중심생활권
중도금 무이자 · 송파 랜드마크 · 청약통장 무 · 35층 상향확정

상담문의 02)588-1800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 · 경기 · 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의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동 · 호수 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원 모집 차수 또는 동 · 호수에 따른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 산정의 방법에도 정한다. ■ 건축관련 법규에 따라 인 · 허가 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허가관청의 조례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가입한 조합원의 동 · 층 · 호수 · 향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예정되는 세대배치 업무일체의 권한을 업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상기 조건에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부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방불... 이주노동자 니르말씨의 겨울나기

경기 포천시 채소 농업 단지 현장 방문

영화의 추위가 찾아온 지난 5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채소 농업 단지 들판에 펼쳐진 수백동의 투명한 비닐하우스 사이 사이에 검은 차광막을 씌운 비닐하우스가 점처럼 박혀 있었다.

이 중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 하얀 조립식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 보였다. 2022년 8월 한국에 온 네팔 이주노동자 니르말(30가명)씨가 영화의 기운에도 이 가건물에 살고 있었다.

최근 취재진이 찾은 경기 포천의 채소 농업 단지 일대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을 알기설기 세워서 만든 가건물이나 컨테이너에 거처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행씨가 영화 18도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이후 합법적인 새 기숙사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기자와 만난 니르말이 보여준 방은 3평 남짓 돼보였다. 난방 시설이라고는 낡은 온열기 한 대가 전부였다. 그마저도 화재 위험에 한밤 중에는 켜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온열기(를) 못 쓴다. 불날 수 있다. (불) 많이 난다"며 서툰 한국말로 연신 "춥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기를 막으려고 방바닥에는 장판이

두 겹으로 깔려 있었지만, 바닥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 검은색 천을 임시방편으로 덮어 놓았다. 방 한쪽 구석에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내용물이 반쯤 남은 우유 페트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 매일 자기 전 우유를 끓여 먹는다

비슷한 시간 다른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안에는 일을 마치고 온 팔레스타인 출신 이주노동자 사이드(39가명)씨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남성 2명이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이 쉬고 있던 방 역시 냉골이었다. 천장은 녹슬고 부서졌으며 에어컨 필터에는 먼지가 새까맣게 끼어 있었다. 창문은 군데군데 깨져 하얀색 종이로 막혀 있었다.

9년째 이곳에서 일했다는 사이드씨는 "우리 방에는 보일러가 있다.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며 다른 곳에 비해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속행씨 사고가 발생하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해 겨울 농장주가 설치해 줬다고 한다.

실제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숙소가 바깥에 재래식 화장실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곳은 비닐하우스 내부에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차광막 때문에 빛이 들지 않는

데다 환기 시설도 없어 곰팡이와 물때가 가득한 화장실은 여전히 열악한 모습이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1월 농·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사업장이 불법 가건물을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면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현장 점검을 통해 열악한 주거시설을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는 희망에 따라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상당수 사업장은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통해 불법 가건물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숙사 미제공'을 명시한 후 고용허가를 받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도 늘었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는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의무 조항이 없으니까 기숙사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기숙사에 거처하게 하는 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아니 갈 데 없으면 그냥 여기서 지내라면서' 사용료 명목으로 20만원씩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했다.

언어적 한계가 명백하고 인적 네트워크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 ©뉴스시스

가 없다시피 해 자력으로 집 구할 능력이 안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유지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 목사는 "근로계약서에 '불라 제공'이라고 했으면 고용허가 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당국은 사진을 찍어내라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진 지난 5일 오후 경기 포천시의 채소 농업 단지에 있는 한 가건물 앞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니르말(30·가명)씨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 하든지, 인차계약서를 내라고 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는다"며 "경기 북부에서 고용허가 후 사후 점검을 한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엄격한 심사도 하지

않고 사후에 단속 관리 감독도 거의 하지 않으니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목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요구해도 무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중재기관으로 만들고 일터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70% 이상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 임철휘 기자

한일장신대,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참여

지난해 7박 8일간 진행... 총 17명 참여

한일장신대(총장 배성찬) 간호학과(학과장 김지애) 재학생들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이번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사업단장 소성섭 교수와 황혜재 교수, 2학년 재학생 15명 등 17명이 참여했으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동계대학 자체개발 해외파견봉사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으로, 지난 7월에 이어 캄보디아를 재방문한 것이다.

봉사팀은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의 드림 방과후학교, 종크니어 방과후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교육을 실시했으며, 낙원학교·덕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위생교육을 비롯해 키, 몸무게, 시력, 청력을 측정하는 신체검진을 진행했고, 종크니어 마을 주민들과 톤레삼 수상 가족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당뇨 측정 및 건강관리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김여원 학생(2학년)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



한일장신대 캄보디아 해외봉사활동 참여자 기념 사진. ©한일장신대



해외봉사활동 진행 사진. ©한일장신대

달았다"며 "늘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일장신대 간호학과는 학생들이 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해외봉사활동 및 해외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전주대, 캄보디아 해외봉사... 낙후된 교육시설도 정비

전북 전주대학교는 '수퍼스타 청춘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자'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동계 해외 봉사단을 발대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주대는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 나눔과 섬김의 실천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구현을 위해 매년 저개발국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번에 파견되는 해외 봉사단은 인솔교직원 7명, 학생 39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8일부터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코마비전센터, NPIC, JIU 프렌드십센터)과 캄보디아 시엠립(참빛교회)로 총 2개 팀이 파견됐다.

구체적으로는 프놈펜팀이 교육팀(한국어 및 한국문화, 과학, 미술, 보건 등)과 문화에너지팀(K팝, 동요, 전통 놀이, 미니올림픽 등), 노아지원팀(요리, 유아 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미술 등), 시설지원팀(아동 시설 보수)으로 각각 운용된다.

또 시엠립팀은 MK사역, MK전양축제, 음악 앙상블, 현지인 앙상블 사역, 현지교회 사역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 아동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 시설지원팀



전북 전주대 동계 해외 봉사단 발대식을 마치고. ©전주대

파견, 캄보디아 낙후된 교육 시설을 정비해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여기에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주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시엠립지부, 좋은나무 국제학교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통해 전주대캄보디아 선교 및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발대식에서 홍성덕 대외부총장은 "캄보디아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

러분이 땀 흘리는 모든 자리에 전주대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김문택 선교봉사처장은 "우리 학생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가진 올바른 가치관과 섬김의 리더십을 배양한 실천하는 봉사인을 양성하는 전주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난솔 기자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결국 LX Z:m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수퍼세이프

LX Z:m

“미혼모·아이 살려 보람... 보호출산제 기대”

[인터뷰]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베이비박스는 생명의 박스예요. 아기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기들을 죽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데려오라고 하는 박스입니다.”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 박스’ 목사로 유명하다. 2009년 위기영아 보호 사업으로 시작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며 2015년 미혼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베이비박스” 센터가 미혼모 아이들을 상담하고 3년 간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면 미혼모들이 아기를 돌보고 다시 이곳을 찾아오면 그게 큰 기쁨이죠”

최근 기자와 만난 이 목사는 “그 아이들이 죽으려다 죽지 않고 아기를 키우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베이비박스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와 함께 박스에 들어있는 아기 그림이 있다. 박스 상단에는 성경 구절 대신 ‘당신이 이 아이 생명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유기 될 위기 에 처한 아이들 뿐 아니라 그 엄마도 살리는 생명의 박스”라고 강조했다.

“처음엔 저희 부부가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다 보니 미혼모 상담이 저조했으나 직원들이 점차 늘고 미혼모 지원이 체계화됐어요. 최근 3년 평균 미혼모 98.7%가 상담을 받고 그중 28.6%는 출생 신고 후 아기를 키우기로 했지요”

베이비박스는 미혼모 가정에 3년간 매월 양육키트, 생계비, 병원비, 주거 지원, 법률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국가 지원 없이 100% 후원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된다.

베이비박스 운영 센터 1층에 들어가면 베이비박스와 연결된 아기방이 오른쪽에, 엄마가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이 왼쪽에 있다. 아기방에는 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임양을 앞둔 아기들을 돌본다. 지난해 12월15일 현재 베이비박스가 보호

한 아기는 총 2120명이다.

이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운영 초기에 10대 미혼모의 아기들과 장애아를 주로 보호했었는데 한 할머니가 말긴 외상장애에 손녀딸을 기른 것이 베이비박스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어느 날 다른 병동에 일면식이 없던 할머니가 찾아와 ‘아저씨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며 외상장애로 누워있던 손녀딸을 맡아 달라며 당황했죠.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아내와 상의 후 아이를 데려와 저희 둘째 아이와 함께 돌보게 됐습니다. 이듬해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지난 2012년 출생 신고를 강제하는 입양 특별법 시행 후 베이비박스는 출생 신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 아기를 주로 보호하고 있다.

이도록 태어난 아기, 이혼 후 300일 이전에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난 아기, 불법 의국인과 난민의 아기, 근친으로 태어난 아기, 성폭력에 의해 태어난 아기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영아 출생 미신고와 유기사망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베이비박스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이 목사는 이 사건 후 정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처벌 받게 된 엄마들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는 엄마에 의해 지켜진 아기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아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만든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담임목사. ©뉴스이

지켰는지 확인됐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고 보호 대상으로 돼야 해요. 이에 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엄마가 처벌 받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목사는 영아유기와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생명 경시 문화로 꼽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지금 제일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생명 경시 풍조 몰아내기입니다. 생명은 존중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태어난 태어나 보호 받아야 하고 태어난 생명을 버리지 않도록 법 제도와 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는 7월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가 처음 시행된다. 출생 통보제는 그간 부

모 등 보호자에게만 부여됐던 출생 신고 의무를 확장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보호 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지원하고 친생모가 원하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목사의 올해 새해 소망은 생명 존중이다. ‘보호 출산제에 대해 의미가 남다르다’

“베이비박스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도, 장애가 있는 아기도, 모든 아기는 태어나면 국가와 국민이 축복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 출산제’로 태어난 아기는 국가가 어떻게든 보호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수지 기자

한국 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의 첫 사역지는 파주 금촌교회



파주 금촌교회 ©세계성서화운동본부



故 김준곤 목사 ©기독교일보DB

1948년 장로회신학교 1회 졸업 후 이 교회 전도사로 시무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창설하고 대학 생 선교를 기반으로 민족복음화운동과 세계복음화운동을 주도했던 故 김준곤 목사(1925-2009)의 첫 사역지 교회가 파주 금촌교회(예장 통합)로 밝혀졌다.

김준곤 목사의 역사 정리와 기념사업을 감당해온 김철영 목사(세계성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김준곤 목사가 1948년 9월 장로회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시고 첫 사역을 한 교회는 경기도 파주시 율목길 85(금촌동 334-117)에 소재한 예장 통합 교단 소속 금촌교회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5일 금촌교회를 방문하고 왔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김준곤 목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조선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으나 송창근 김재준 교수가 자유주의신학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해 정규오, 신복윤, 박창환, 조동진, 엄두섭 등 5인과 함께 부산 고려신학교에 편입했다가 남산에 장로회신학교가 복구하자 박형룡 박사(조직신학)를 모시고 올라와서 1948년 장로회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1995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가평 광성수양관에서 ‘처음 사랑으로, 처음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CCC 전국간사수련회 저녁집회에서 김준곤 목사는 ‘CCC 역사와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시면서 신학교 졸업 후 첫 사역 교회와 관련한 스토리를 언급하신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김준곤 목사는 장로회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시고 경기도 파주 금촌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면서 본인은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하이라(듣기)를 훈련할 목적으로 주말이면 서울에 있는 성결교신학교에서 미국 선교사가 영어로 가르치는 신학 강의를 들으며 기차를 타고 왔다갔다 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인정진 사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특히 “김준곤 목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마침 일선 사찰을 나왔던 신안군 장산면 대리 출생의 장흥영 국회의원이 국회팀과 사찰을 하고 돌

아가는 버스를 타고 인정진 사모님과 어린 딸(은희, 1946년 10월 29일 출생)과 함께 고향인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림마을로 내려갔다고 회고하셨다”고 소개했다.

김철영 목사는 “김준곤 목사님은 6월 25일 아침 주일에 새벽기도 설교를 하려고 4시쯤 일어났는데 대포 소리가 나서 연습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 5시쯤 되니까 피난민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북한군이 남침해 피난민들이 흥수처럼 밀려오고 대포 소리도 가까워졌다며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님은 정미소를 하는 대 가부인 권사님이 부인회(여전도회) 회장이었고, 저에게 줄 사례비는 성가대 대장하던 집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피난을 가버려서 어디서 돈 한 톨 얻을 데가 없었다는 증언과 함께 감동적인 일화를 밝혀셨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김준곤 목사가 금촌교회에서 나와 10리 정도 오다가 소아마비 아들이 있는 그 권사님 집에 가서 긴 기도를 했다. 그 때 그 아이가 커서 전쟁이 끝나고 몸이 기적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대리 출신인 장흥영(한국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팀과 버스를 타고 일선 사찰을 하고 돌아가는 버스를 얻어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훗날 김 목사님이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한 건장하게 잘 생긴 청년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금촌에서 정미소 했던 아무개 권사를 아세요?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나왔어요’라고 해 기쁨과 감격 속에 그 권사님 아들을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하셨다”고 밝혔다.

김철영 목사는 “김준곤 목사의 역사 정리를 하면서 첫 사역지 교회를 찾는 일이 마지막 퍼즐처럼 남아 있었다”며 “그래서 파주 금촌 지역에 있는 70년이 넘는 장로교 교회 중 예장 통합과 예장 통합 교회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곤 목사는 1958년 9월 장로교 총회가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으로 분열이 된 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

장 합동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두 교단 소속 교회 중 역사가 1948년 이전에 설립된 교회를 찾기 시작한 끝에 예장 통합총회 소속 금촌교회에서 전도사 신분으로 담당 교역자로 시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촌교회는 1885년 4월 5일 주일에 재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1907년 3월 15일 개척하고 이원공, 신태영 씨를 중심으로 금촌3리(새마을)에서 초가 4칸을 예배처로 삼은 역사적인 교회”라며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불길이 남한으로 번지면서 설립된 교회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목사는 “김준곤 목사님은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부인 인정진 사모가 주일학교를 했다는 이유로 좌익에 의해 1950년 10월 3일 죽임을 당했다. 김 목사의 부친도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와 부친을 죽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처벌을 받지 않도록 탄원서까지 써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김준곤 목사는 1951년 목사 안수를 받고 전남 영광군 법성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후 1953년 3월 광주 서부교회(현 서현교회)에서 6개월 여 목회를 한 후 광주숭일중고등학교 교목과 교장으로 재직했다”고 했다.

그리고 애양원 한성신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한 후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귀국 후 1958년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설립하고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대학생 선교를 기반으로 민족복음화운동과 세계복음화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김철영 목사는 “김준곤 목사의 역사 정리의 한 매듭을 풀 것 같다”며 “김준곤 목사의 본래 출생 연도는 1924년인데, 호적으로는 1925년이다. 1925년 탄생 100주년에 ‘김준곤 평전’ 등을 출판해 다시 한 번 민족복음화운동의 불씨를 되살리게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김진영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NH가 손을 보드립니다

NH농협금융은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은 물론,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도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갑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저축 NH농협카드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생명보험 NH생명투자 NH생명카드

조정민 목사 “좋은 신앙이란 좋은 균형”

유튜브 채널 '잘잘법'서 건강에 대한 견해 전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사진)가 5일 유튜브 채널 '잘잘법'에 출연해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와 꾸준한 운동 압박에서 해방되리라'는 주제로 나누었다.

조 목사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 몸이 간절히 원할 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고 지금부터 끊어야 한다고 했을 때, 다 끊게 된다. 또 배우들은 배역이 주어지면 그 배역에 합당한 몸을 만들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한다"고 했다.

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것이다. 우리가 식스팩을 만들어야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해야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며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도록 만드셨고,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게 만든 바이오텔리미다 있는데, 우리가 그 리듬들을 다 깨 놓고, 쓸데없는 지식을 가지고 건강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다. 어떻게 보면 건강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더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말았고, 실제로 몸은 건강해졌지만, 영혼은 가난해져서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훨씬 많은 이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소명을 감당할만한 체력이 있으면 건강한 것"이라며 "건강에 대해 지나친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에 목표가 보드빌더라면 사흘이 아니라 3년이라도 근육을 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건강을 위해 근육을 늘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작심삼일로 끝나더라도 자기 자신을 비난·경책하지 말고, '나는 그냥 숨쉬기만 해도 건강한 거야'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다.

이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몸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며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육신도 강하게 따라갈 수 있다. 물론 아픈 사람도 많다. 저는 좋은 신앙이란 좋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사고에도 균형을 가져오고, 삶 전체에도 균형을 가져

다가 주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했다.

또 "신앙이 바로 잡하면 인간관계도 수평적으로 균형이 생기고, 몸의 균형도 어느 정도 잡힌다"며 "좋은 신앙이 꼭 좋은 건강을 보장한다는 말은 아니다. 세상 중심의 지나친 건강에 대한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는 "신앙이 가져오는 균형은 수직적 균형과 수평적 균형"이라며 "수직적 균형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균형인 인간관계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수용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를 맞춰가는 놀라운 균형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직적 균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수평적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 중심이 아니며,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내 손익관계에 매여있지 않기에 인간관계가 점점 균형과 평형을 잡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삶 전반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들이 평형에 맞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아홉가지 열매 중 마지막 그립을 완성하는 것이 '절제'이다. 절제는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이다. 전도만 하게 되지 않는다. 성경과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되고,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사역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골고루 하게 되는 신앙의 균형을 이룬다"고 했다.

또 "이 균형이 깨진 것이 이단들"이라며 "신앙의 한 가지 측면으로만 몰고 가는데, 이것이 신앙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며, 인생 전체를 깨뜨린다"고 했다.

조 목사는 "모든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화평"이라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을 뒤바꾸는 것이 화평이다. 모든 질병은 생활습관병이 대부분이다. 살아온 총체적인 결과가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고체계의 전환을 통해 우리의 몸도 따라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패턴, 몸의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좋은 신앙은 반드시 불치병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균형이 가져오는 놀라운 부수적인 효과로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균형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날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균형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며 "우리가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다시 믿음을 구하는 까닭, 오늘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균형을 순식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균형야말로 중요한 삶의 지혜"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는 경우, 고려해야 할 두 가지는…”

박종순 목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 대표)가 최근 '바른신학 균형생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해 답했다.

박 목사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는 경우 몇 가지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첫째는 조건 없이 빌려주는 것이다. 친구를 사랑하고 돕고 싶은 마음으로 조건

없이 빌려 줄 수 있다.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는 약속이나 조건 없이 빌려주는 경우"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갚는 것을 전제하고 빌려

주는 것"이라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다양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수를 부려 갚지 않으려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꼬드겨 돈을 빌린 후 잠적하거나 몰라라 하는 사람



들도 있다. 그런가하면 빌린 돈을 갚도록 재촉하는 사람을 나무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편이 관계 유지에 유익하다"고 했다.

그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도 있다"며 "첫째는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언어와 문서로 다양한 약속을 하는가 하면, 그 약속의 이행 여부로 사람됨을 가늠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집단이거나 후진국가들"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습관

이 되면 안 된다"며 "돈 빌리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든지, 갚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 돈 빌리는 것을 겁내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셋째로 빌려 주며 사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 내의 불건전한 금전 거래나 교인간의 불확실한 금전 거래는 삼가게 좋다"고 했다.

아울러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돈, 여윌 돈이라면 빌려 주어도 좋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스 모여라!
535개 아름스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너희들이미래다 #금융으로일상을이롭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권 신한카드가 응원합니다

Lead by 신한카드

개혁주의학술원 「갱신과 부흥」,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 통과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원장 황대우)이 학술지 「갱신과 부흥」(편집위원장 황대우)이 지난해 12월 8일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학술지 계속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으로 통과되어 '등재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학문분야 별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학술지들을 게재 논문의 학문성과 질적 수준, 학술지 편집위원의 학문성, 학술지 심사제도의 엄정성, 논문 게재율과 탈락율, 연구 윤리성, 출판물의 정시성과 편집수준 등의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술지의 수준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갱신과 부흥」은 등재학술지로서 일반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 보다 높은

등급이며, 연구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실적물로서 학계와 정부가 인정하는 학문적 수준을 담보한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에 등록되어 국내외 전문연구자들에게 정보가 공개되어 학술지의 정보, 학술지 수록 논문, 게재 연구자 정보, 초록, 참고문헌 등이 공유 및 확산된다.

「갱신과 부흥」은 고신총회의 '유일한' 등재학술지로서 2008년 11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그리고 개혁신학에 기초한 실천적 연구를 균형있게 제공하여 한국교회와 학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 복음주의권 학계에서도 몇몇

등재지들을 발간하고 있으나 온전히 정통적 개혁신학을 전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술지는 거의 없다.

「갱신과 부흥」의 등재학술지 계속 평가 통과는 정통적 개혁신학을 안정감 있게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장을 고신대학교와 고신총회가 제공 및 리더(lead)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를 위해 황대우 교수와 김영종 교수, 그리고 김혜원 간사의 수고가 컸으며, 이현철 교수의 조언과 후원이사회와 모든 후원이사들의 재정지원도 주요했다.

한편, 「갱신과 부흥」은 연2회 3월 31일, 9월 30일에 발행하고 있으며, 투고는 온라인(https://kirs.jams.or.kr)으로 12월 1일~1월 31일, 6월 1일~7월 31일 진행된다. 장지동 기자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제10-2호 원고모집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한재 교수)가 학술 「교회와 법」(편집위원장 명재진 교수) 제10-2호 원고모집을 공지했다.

「교회와 법」은 교회의 '신앙공동체'로서의 측면과 '교인들의 단체(사단)'라는 측면에 관련된 신학적·법적 주제들을 다

루는 학술지이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서 매년 2월과 8월 2회 발행하고 있다. 제10-2호는 오는 2월 29일에 발간 예정이며, 원고 제출 마감일은 오는 1월 31일이다.

법학회 측은 "10권 2호의 특집 주제는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라며 "그

러나 다른 일반 주제도 본 학술지의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것이면 투고를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기타 투고요령과 심사기준 등에 관해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s://www.churchlaw.or.kr)와 스마트폰 앱 '처치앤로'를 참고하면 된다. 장지동 기자

삼애교회, 의정부시 송산3동에 사랑릴레이 쌀 기탁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민락동 소재 삼애교회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창구에 쌀 10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삼애교회는 매년 사랑릴레이에 동참, 쌀 기탁 등 송산3동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이갑재 담임목사는 "앞으로도 지

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꾸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근숙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목사님 및 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기탁식을 마치고. ©의정부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II

전 세계 국가와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Mary Nell Wyatt, 리진만 역)이 지난 12월, 발간 1개월 만에 2쇄를 인쇄할 만큼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고고학자이자 열렬한 성경 연구가였던 론 와이엇(Ron Wyatt)은 성경의 렌즈를 통해 오늘날 많은 전문가와 종교학자들이 정통으로 인정하는 성경에 언급된 여러 장소를 발굴했다.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편 론과 저자 매리 와이엇이 발굴하고 정리한 자료들은 이제 신뢰할 만한 출애굽 시대의 연대기, 진정한 홍해 횡단 장소, 진정한 시내산, 진정한 노아의 방주로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이 책은 우리의 흥미를 끄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히소스(헷 족속),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출한 공주(네페레)와 모세의 왕궁 생활에 관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출애굽 진실에 관한 저자의 30여 년간의 끈질긴 탐구 결과물로, 익히 영어 원서 『Battle for the Firstborn』은 ‘미국 아마존 화제의 도서’로 영어권 크리스천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독교일보와 선교신문은 번역본을 주제별로 발췌해 소개하려 한다.



①임호템(요셉)이 건설한 파라오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 ©Randall Lee ②, ③계단식 피라미드 단지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 ©Randall Lee ④계단식 피라미드 단지의 위치와 구조 ©Mary N. Lee ⑤단지로 통하는 긴 저장고 입구에 있는 두 기둥 사이의 공간 ©Randall Lee ⑥열주를 통해 단지에 들어간 후 보이는 피라미드 ©Randall Lee ⑦가장 큰 '곡물 저장고' ©Mary Nell Lee ⑧곡물 저장고 디자인을 단순화한 그림. 모든 저장고는 슬라이더로 연결되어 있다. 사용 중인 저장고 중 하나에 곡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활송 장치가 열리고 다시 채워진다. ©Jim Pinkoski ⑨벽 밖의 출구로 이어지는 계단. 이것은 입구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필요했고, 곡식을 얻을 때 위험한 작업을 보강했다. ©Randall Lee ⑩남쪽 벽 외부. 곡물창고 외부 벽 하부의 출구는 오늘날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Mary Nell Lee

II. 임호템 - 첫 번째 피라미드의 건축가

임호템은 이집트 전체에서 첫 번째 피라미드의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를 유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 7년의 풍년 동안, 파라오는 요셉의 현명한 인도 아래 모든 주변 국가에 대한 곡식 판매를 처리하는 잘 운영되는 행정 센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기근 동안 이집트는 곡식을 팔아 주변 모든 국가의 부를 모았다.

이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는 파라오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 단지에 있는 사카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피라미드 안에 미래의 파라오 매장지를 둘러싸는 대규모 단지가 세워졌다.

III.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 단지

단지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단지 내에는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인 계단식 피라미드가 있다. 남쪽 끝에 있는 동쪽 벽의 정면에는 양쪽에 20개씩 40개의 기둥이 있는 긴 홀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 각 기둥은 수직 벽으로 주 벽에 연결되어 각 기둥 사이에 작은 칸막이를 형성한다.

이 열주(列柱)를 빠져나오면 눈에 보이는 매우 깊은 저장고가 있다. 이들은 크기가 매우 크고 다른 매장실보다 훨씬 크며, 모두 중앙에서 낙하 도구를 연결하여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 거대한 저장소는 지상에서 몇 자 위로 뻗어 있는데, 이는 묘지처럼 숨겨져 있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위한 많은 귀중한 재료와 식량을 죽은 자를 위해 묻었기 때문

에 묘지를 약탈하는 것이 항상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저장소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다른 모든 고대 도시에서는 이와 같은 큰 저장소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될 때마다 곡식 저장고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엄청난 양의 곡식을 담는 데 사용된 거대한 공간이라는 증거는 설득력이 있다.

추가 증거는 계단식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조세르의 매장 단지에서 발견된다. 그의 묘지 안에는 왕과 그 가족의 사후 세계를 위한 더 작은 저장 공간이 있으며, 이 저장고에서 곡물과 기타 식품이 발견되었다.

모든 곡물 저장고는 위 그림(4 이미지)의 빨간색 영역에 있다. 유일한 출구도 위(4 이미지)에서 볼 수 있다.

곡물을 구입한 후 구매자는 긴 계단을 내려와 벽 밖으로 안내된다. 그 위치는 가나안 동쪽과 북쪽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했다. 또한 서쪽에서 오거나 지중해를 통해 배를 타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했다.

성경 기록에서 우리는 요셉이 애굽 전역에 사람들을 임명하여 모든 도시에서 곡식을 모으고 저장하는 일을 감독하게 했음을 알게 된다.

창세기 41:34 임금님께서는 전국에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일곱 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오분의 일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창세기 41:35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요셉은 총리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파라오에게 이 계획을 전달했다. 그가 온 나라의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일을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그는 이집트 전역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을 의미했다. 기근이 시작되고 애굽인들이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지시를 했다.

창세기 41:55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사키는 대로 하라” 하였다.

창세기 41:56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이방인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은 요셉에게 공작 갔다.

창세기 42:6 그 때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었

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사카라의 단지는 독특하며 지금까지 발견된 것과 같은 단지는 없다. 윌리엄 헤이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자체로 진정한 도시, 단일 단위로 계획 및 실행되었으며 근처 무카탑 언덕의 미세한 흰색 석회암으로 지어졌다.”(『The Scepter of Egypt, Vol. I, p. 60』)

론(Ron Wyatt)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곳이 기근에 대비한 곡물을 저장하는 곡물 저장소의 중심 위치라고 믿었다.

계단 피라미드 단지의 남쪽 끝으로 나가는 긴 복도(2, 3 사진)는 서로 반대편에 20개의 기둥이 있다. 이 공간에는 다른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조각상이 없다. 룬은 관리자가 앞서서 곡물 구매를 돕기에 완벽한 크기라고 믿었다. 단지로 통하는 긴 저장고 입구에 있는 두 기둥 사이의 공간(6 사진)은 사람이 책상을 놓고 곡물 구입을 위한 거래를 처리하기에 완벽한 크기이다. 그 지역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하다.

계단식 피라미드 단지는 곡식을 구하려 온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편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것은 모든 외국에 대한 곡물 판매와 관련된 주요 상업 중심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져야 할 주요 고려 사항이다.

“7년 기근” 동안 이집트는 곡식 판매를 통해 열국 중에서 큰 부와 명성을 얻었다. 나일강을 따라 도시에 거주하던 이집트인들은 7년 풍년 기간 수확한 곡식의 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근 동안 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은 노예가 아닌 감사하는 신하로서 파라오의 건축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파라오는 요셉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요셉의 가족에게 고센 땅에서 살 권리를 부여했다.

창세기 47:2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자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창세기 47:11에서는 람세스 땅이라고도 함)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큰 재물을 주셔서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야곱의 가족에게도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인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성장하고 번성했다. 대부분의 고대 유물이 부서지고 크게 손상되었지만, 계단식 피라미드 단지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보존되어 있다.

110세까지 살았던 요셉은 수많은 다른

파라오의 통치 기간을 살았으며, 아마도 그들 말에서도 봉사했을 것이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방부 처리되어 관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이집트에서 나그네이며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창세기 50:25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사키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 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온 때부터 모세가 출생할 때까지 약 180년이 있었다. 많은 파라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많은 파라오가 다른 지역의 다른 파라오들과 동시대에 통치했다. 여러 해 동안 모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 땅에 살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 바뀔 것이다. <계속>

※이 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에서 발췌해 소개합니다. 글: 매리 넬 와이엇 (Mary Nell Wyatt) 번역: 리진만 선교사



자연
내림

구매문의 | 1833-2655

제조원: (주)동진제약
판매원: (주)만수모강

MOMODAN HAIR TOTAL SOLUTION

“두피와 모발을 더욱 생기있게 업그레이드”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을 만나 두피변화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채우세요.

- ✓ 머리가 자주 가려우신 분들
- ✓ 두피에 각질이 많으신 분
- ✓ 머리가 빨리 기름지시는 분
- ✓ 가는 모발에 술이 없으신 분
- ✓ 두피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

모모단 헤어토탈솔루션

HAIR TOTAL SOLUTION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

를 검색하세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의 한미연회 비전컨퍼런스

2023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플로리다주 탬파한인감리교회와 Hyatt Place 호텔에서 46개교회가 정식 등록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한미연회 비전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한미연회 비전컨퍼런스는 Re:Set (Restoration, Euangelion, Scripture, Empowerment, Transformation) 이라는 주제로 성경적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며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한미연회를 만들기 위한 Town Hall Meeting 형식으로 모이게 되었다.

한미연회 임시위원장인 고한승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비전 컨퍼런스는 안건 처리를 위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이름 그대로 함께 한미연회의 비전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동시에 서로 격려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UMC 탈퇴 과정 속에서 많은 교회가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개척으로 출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같은 비전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격려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환영하며 시작을 알렸다.

첫째날 저녁집회에서 현재 GMC 감독이자 한미연회의 주제 감독인 Mark Webb 감독은 'Vision'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미션은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who worship passionately, love extravagantly, and witness boldly.' 라는 사명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이후에는 고한승 목사, 조영진 감독이 인도하고 김응용 목사, 백승린 목

사, 김성권 장로, 강윤희 권사가 보좌하는 성만찬으로 그동안 흠어져 있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튿날 12월 5일 아침집회에 말씀을 전한 김태준목사(콜로라도 한미감리교회는 '열음이 녹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열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음이 녹으면 불이 온다는 어린 학생의 감동있는 예화를 들면서 이제 한미연회에서 열음이 녹고 새로운 불이 올 것을 기대하자며 말씀을 나누었다.

이어서 오전 Learning Session1에서는 International Leadership Institute 강사인 Rev. Wes & Joy Griffin의 강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Wes Griffin은 "Do you think you could also be a HISTORY MAKER?"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을 하였다. Joy Griffin은 한미연회에서 전해준 파란색 티셔츠를 기념하며 리더십의 8가지 핵심요소인 'Intimacy, Passion, Visionary, Culturally, Multiplication, Family, Stewardship, Integrity'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후 목회자 세션, 평신도 세션으로 나누어서 목회자 세션에서는 지금까지 TCAT에서 준비한 각 위원회 보고를 가졌고 평신도 세션에서는 평신도연합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 시간에는 연회 위원회별 모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후에 이어진 주제별 토론 시간에는 평신도 직제와 감독 추천안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평신도 직제와 감독 추천안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시간



한미연회 비전컨퍼런스를 기념하며. ©주최 측 제공

을 두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TCAT에서 준비한 안보다 더 발전된 안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재무행정위원회 보고에서는 양훈장로(재무행정위원장, 더바인교회)가 2024년도 한미연회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한미연회 연대사역헌금으로 각 교회가 5%(총회 1%, 연회 4%)의 연대사역헌금을 내어서 총 200만불(총회: 40만불, 연회: 80만불, 교회개척및 미래펀드 80만불)의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은 172만불을 집행하기로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어서 류계환Chief Connectional Officer는 현재 UMC교단탈퇴 과정과 GMC 교단가입과정을 설명하였다. 2023년 12월 1일 현재 미국내 7,495교회가 UMC연회 탈퇴결의를 통과하였고 이는 미국내 교회의 25.6%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UMC 25교회중 11교회가(44%) 탈퇴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GMC 내에는 18개의 임시연회(PAC), 6개의 연회준비위원회(TCAT, TDAT)가 구성되어 있고, 4,000개의 교회와 4,200명의 목회자가 GMC에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관심을 가졌던 한미연회에 속한 교회는 현재 동부 34교회, 중부 21교회, 서부 13교회 총 68개교회가 GMC가입 완료, GMC가입신청, GMC교회개척준비라고 보고하며 이밖에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6교회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MC 한미연회에 속한 33개 한인교회 탈퇴 비용이 무려 \$ 11,535,761.46였다고 보고하며 한미연회의 재정규모와 앞으로 사역에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연회 비전컨퍼런스에서 중요한 모임중에 하나는 지방별 모임이었다. 서부지방 감리사 신병욱 목사(Miracle LA Church), 중부지방 감리사 손태원 목사(텔사한인교회), 동부지방 감리사 이철

구 목사(남부플로리다교회)의 주제로 열린 지방별 모임에서는 새로 구성된 지방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미연회에 평신도직제와 감독추천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고 무엇보다 2024년도와 앞으로 함께 할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나눔으로 지방회가 개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교육 그리고 교회 개척에 대해서 힘을 다짐하였다.

이후에 이어진 저녁집회에서는 이성철 목사(전 달라스중앙감리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마틴루터의 말을 인용하였다.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을 때 그가 고백했던 말 'Here I Stand' 나는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또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나는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라는 마틴루터의 고백을 감동과 은혜를 주었다. 그동안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갈 방향을 잡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한미연회 비전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아침경건회로 시작되었다.

아침 경건회 설교를 전한 송명철 목사(캔자스중앙글로벌감리교회)는 '필요해서 보냈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엘리사가 쇠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비유를 본문으로 전했다.

그는 "우리가 때로는 도끼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을 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Learning Session 2에서는 류계환 CCO와 유혁재 목사(몽고메리 주님의 교회)가 GMC 교리와 장정을 설명하면서 UMC와 GMC 교단의 교리와 장정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 폐회예배에서는 조영진 은퇴감독이 '신실한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설교중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일어나서 John Wesley 언약의 기도를 (Covenant Prayer) 함께 읽기를 요청하였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모든 일에 이루어 지게 하소서. 주께서 저를 어느 곳에 세우시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일을 견디게도 하소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나, 혹은 아무일이 없을 때나,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평안함 중에 있거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종락"

이제 한미연회 비전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미연회의 Re:Set이 시작되었다. 다음 모임은 2024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달라스중앙감리교회에서 한미연회 첫 정기연회로 모이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한미연회와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미연회 공부부에서는 한미연회 비전컨퍼런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탈퇴과정에서 겪었던 개교회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시시르로 연재할 예정이다.

한미연회 공보 제공

올해의 시작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난 1월 1일 아침 11시 스톤마운틴에서 밀알장애인선교단(최재휴 목사), 동남부장애인체육회 (전경태 회장), cbmc스와 니지회(김호진 회장) 이 함께하는 '새해맞이 스톤마운틴 등반행사'에 60여명의 장애인, 가족, 봉사자들이 참가했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향하여 한걸음씩 내딛으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등반을 마쳤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열리는 정기행사이다.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일단 모여서 정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시간들이 있었다. 참

가져들은 아침 10시 밀알선교단에서 모여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기도를 마치고 스톤마운틴으로 향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다소 좋은 일기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여 정상을 오르고 내리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고 건강한 새해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독교실업인회(cbmc 스와니지회, 김호진 회장)은 매년 아틀란타 장애인단체에 기부와 사랑의 실천을 전하고 있는데 금년 첫 행사로 밀알장애인선교단과 장애인체육회가 함께하는 행사에 여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외동

포재단(아틀란타 총영사관) 이 후원했다.

등반을 마친 후에는 밀알선교단에 모여서 떡만두국을 나누며 유익한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진두지휘한 밀알선교단의 최재휴 목사는 "금년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든 행사와 매일의 일정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함께해서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남부장애인체육회 전경태 회장은 "특히 아틀란타 및 인근 동남부 지역의 모든 장애인 가족들이 금년 한해도 더욱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전문가를 통

하여 각자의 장애 특성에 맞는 운동처방을 받기 바란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한 부분인 기초 재활운동, 여러 종목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그리고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엘리트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도모함은 물론 여러종목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전세계대회에서 지역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멋진 선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적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동남부장애인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연락처: 678-362-7788, 전경태 회장 앤더슨 김 기자



스톤마운틴 등반을 기념하면서. ©단체 측 제공

서울대 출신

골치 아픈 세금문제,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분 좋은 세무 파트너 송선호 세무사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회, 목회자 세금신고

법인세, 소득세

세무상담 02-3295-3300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고문세무사 **차삼준**

- 전국 15개 세무서근무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및 송무업무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
- 종로,서초세무서 법인세 과장

세무사 **송선호**

- 충북과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세무사회고시회 이사
- 국세청 영세납세지원단 세무사
- 서울시 마을세무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세무사 **송선호**

“1·2세 관계없이 모두 복음 필요”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 이진호 목사

새해 미국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이진호 목사(46)를 만나 앞으로의 목회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차분하면서도 겸손한 음색이 인터뷰 분위기를 내내 편안하고 유쾌하게 만들었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에서는 온화함이 전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족같은 교회 공동체라는 말에 진솔함이 담겨 있었고, 차세대 부흥과 EM 사역에 필요한 마음가짐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차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어권 성도들과 영어권 성도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는 이해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향후 목회 방침으로는 “복음 선포를 통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강한 교회, 세대의 구분없이 사랑으로 하나된 가족과 같은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는 처음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먼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사역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받아주시는 김병규 목사님과 사모님, 시애틀주님의영광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역에 임하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또 복음으로 회개를 섬기시고 사랑으로 목회에 헌신하신 선임 목사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가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한국에서 13살까지 살고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 이민 온 지역이 한인들이 거의 없는 남가주 빅토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로 이사한 후에는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를 다니며 한인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도 이해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었는데, 18살 때 교회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수련회를 갔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이올린과 플라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남가주 벨앨한인교회에서 한어 청년부와 유스, 북가주 새크라멘트한인장로교회에서 EM 대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 전임 김병규 목사(왼쪽)와 이진호 목사(오른쪽) ©토마스 멩 기자

학 청년부와 영어권 중고등부, 아리조나 템피한인장로교회에서 영어권 청년부와 유스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시애틀비전교회에서 사역했고, 최근까지 큰사랑교회에서 EM과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EM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한국말이 굉장히 유창합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는 주변에 한인들도 없고 미국 교회를 다녀서 영어만 사용하다 보니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샌디에고로 이사를 했고, 거기서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다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주위분들께서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시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웃음)”

“새해부터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가요?”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는 한어권과 영어권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어권 사역이 세워지지 않으면 차세대 사역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고요.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윈-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KM과 EM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어권과 영어권의 화합과 융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어권과 영어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언어적 차이보다 문화적 차이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익숙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포기하려고 강요하거나 흥정하기보다는 서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1.5세대 동서양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5세대 좋은 부분이 그런 면입니다. 각각의 문화를 모두 접해왔기 때문에 양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응을 빨리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브릿지 역할의 사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민자로서 미국 교회를 다녔었고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

하는 한인교회도 다녔었습니다. 청년들이 매주일마다 의자를 깔고 접고를 반복했고, 감치 뉘세가 난다고 미국교회에서 쫓겨났던 경험도 있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방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목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1세나 2세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가요?”

“처음 1년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에서 축소된 부분도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소그룹 활성화도 예배에서부터 동력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전 세대가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EM과 교육부까지 한마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가 10년 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는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KM과 EM이 구분 없이 가족과 같은 교회,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지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시애틀 주님의영광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길 원하고,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처럼,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신 부모세대들을 차세대가 케어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멩 기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 100배의 축복이 임하길”

미주 기독교일보 시무예배 드려

미주 기독교일보가 2024년 시무예배를 3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날 미주기독교일보 대표 아인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설교를 했다.

창세기 26:26-33절 말씀을 전한 이수호 목사는 목회자 아들로서 가난한 어린시절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전했다. 이 목사는 “12월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를 따라하기만 했는데 이삭이 계속 축복을 받는다. 사실 저는 이것이 2세대의 축복이라고 본다”라면서 “저도 2대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이전 30년 동안의 체재에 있었던 것을 계속 평가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그렇지만 2대 담임으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껏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주셨고 현재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엘에이에 와서 한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기독교일보가 2024년 시무예배를 3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수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사람 만나도 저에게 걱정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기독교일보의 임직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선택해, 반드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무예배는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기독교보는 2024년 시무예배를 드림으로써 새출발을 알리고,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문서를 통해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토마스 멩 기자

“믿음의 기도와 순종으로 헌신할 것”

조이플 선교교회 2024 신년모임

조이플 선교교회(대표 장현자 목사)는 지난 4일 타코마삼일교회(담임 권상길 목사)에서 신년 기도 모임을 갖고 올 한 해도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 힘차게 달려갈 것을 다짐했다.

장현자 목사는 “희망의 새해에도 에베소서 1:3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는다”며 “조이플 선교교회는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장 목사는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에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어떤 역사도 없

다”라며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 사역하는 조이플 선교교회가 되자”고 전했다.

한편 조이플 선교교회는 그동안 해외선교사와 선교지를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며, 국내 선교와 지역 사회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조이플 선교 합창단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 △전쟁 난민 사역 △교회 개척 △고아 사역 △장애우 사역 △제자 훈련 △금회 사역 △자연 재해와 재난 구호 사역 △성경출판 △의료사역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 △집시 사역 △중독 치료 사역 △신학교 사역 △농아 사역 △정자 사역 △교도소 사역 △노숙자 사역 △외환 선원 선교 사역 △안환우 사역 △शलлшлшл 사역 등 수많은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타코마삼일교회에서 진행된 조이플선교회 2024 신년 모임 기념촬영 ©주희 측 제공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 부담 없는 실투자금
- 중도금 전액 무이자
- 청약통장 무관

Harrington Tower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형에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가치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

2.6미터 층고 +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매일)
하우스키핑, 핏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한양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40
세아·하나자산신탁 (주) | (주)한양에셋 (주)코우드 세아·호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외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CG에 표된 건축물이 외관·디자인, 색채, 경관조형, 옥상정식물, 각종 시설물, 명칭 등 현행여건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패션 2024’ 집회 열려... “하나님께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신앙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 미국의 한 목회자가 ‘미국화된 미지근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영속적인 진리와 생명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나단 포크루다(Jonathan Pokluda) 목사는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집회 ‘패션(Passion) 2024’에 참석해 수천여명의 청년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USA 투데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모든 주요 기독교 및 비기독교 종교단체 중 70%는 ‘많은 종교가 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 안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 그런 사실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어다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 같지 않다”라고 했다.

텍사스 주 웨이크에 소재한 헤리스 크릭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포크루다 목사는 진리 개념에 대해 다루면서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 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의 구체화를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크루다 목사는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조나단 포크루다 목사가 지난 1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패션 2024’ 집회에서 연설했다. ©패션 컨퍼런스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잠깐만요, 내 생각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것은 무지의 진술이다.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공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포크루다 목사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각각 영적 성취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한 종교가 유일한 참된 길이라고 주장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를 무효화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종교들 사이의 모순을 주목했다.

포크루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경에 관계없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하신다는 점에서 기독교

교의 배타성 안에 포괄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팔을 벌리시며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포크루다 목사는 선교여행 중 딸이 병에 걸렸을 때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를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비유로 사용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모든 종교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여행자에게 공항의 모든 문이 집으로 통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수님은 회개의 삶과 죄에서 돌

이키는 삶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재미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여정에 있지 않고 행복의 여정에 있다. 여러분은 신경쓰지 않는다. 여러분은 ‘거짓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거짓을 믿을 것이다. 진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어찌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할 때 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면 어떨까? 진리가 나의 가장 깊은 욕망을 타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전히 그게 진리’라고 말했다.

포크루다 목사는 ‘새로운 관용(new tolerance)의 개념을 ‘오래된 관용과 대조하면서 논의했다. 그는 기존 관용은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관용은 자신의 신념과 모순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것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니,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패션 2024’ 집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18~25세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연합한 모임이다. 올해 연사로는 세디 로버트슨 허프, 루이 기글리오, 레비 루스코가 나섰다. KB, 캐리 조브 등의 음악 공연도 함께 했다. 이명경 기자

美 영화 ‘자유의 소리’,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 제치고 10위

미국의 신앙 기반 영화인 ‘자유의 소리(Sound of Freedom)’가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Taylor Swift: The Eras Tour)’를 제치고 2023년 최고 수익 영화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에 따르면, 영화 ‘자유의 소리’는 2023년 미국 박스오피스 매출 10위를 기록했으며, 7월 4일 개봉 후 약 6개월 동안 미국 3천4백11개 영화관에서 1억7천48만468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자유의 소리’ 티켓 판매액은 전국 최대 3천8백55개 극장에서 약 2개월 반 동안 상영된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의 뒤를 이었다. 이 작품은 6월 30일부터 최대 4천6백개 극장에서 상영된 후 1억7448만468달러의 수익을 기록해 2023년 미국에서 12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자유의 소리’는 콜롬비아 정글에서 성매매범들로부터 어린이를 구출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전직 정부 요원 팀 발라드(Tim Ballard)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현대판 노예 제도에서 어린이 55명을 포함해 123명 이상을 구출했다. 엔젤 스튜디오가 배포한 영화 예고편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유명한 주연 배우 짐 카버젤이 출연해 “하나님의 자녀는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영화 ‘자유의 소리’의 영향력은 국제적 차관까지 확대됐다. 영화에 출연하고 제작한 에두아르도 베라스테기(Eduardo Verastegui)는 지난해 여름 올해 대선에서 멕시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대통령 강령은 ‘하나님, 조

국, 가족을 기반으로 하며 ‘아동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자유의 소리’는 박스오피스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 ‘인디애나 존스와 운명의 다이얼’을 제치고 미국 대중들에게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로튼 토마토는 영화 관객이 제출한 1만개 이상의 평점을 기준으로 ‘자유의 소리’에 관객 점수 99%를 부여했다.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98%)와 ‘인디애나 존스와 운명의 다이얼’(88%)을 약간 앞서는 수치다.

CP는 “영화 ‘자유의 소리’ 외에도 다른 여러 신앙 기반 영화가 2023년 극장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켈시 그래머(Kelsey Grammer)가 주연을 맡은 영화 ‘예수 혁명(Jesus Revolution)’이 미국 전역 스크린에 처음 개봉했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남부 캘리포니아를 휩쓴 영적 부흥을 다룬 영화는 최대 2천575개 극장에서 개봉해 박스오피스에서 5천2백10만2천987달러를 벌어들였고, 로튼 토마토에서 관객 점수 99%를 기록했다.

영화 ‘블라인드(The Blind)’는 필 로버트슨과 케이 로버트슨의 결혼 이야기를 다루며, 가문의 가장이 폐력에 빠져 살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년 9월 극장에서 개봉해 1천715개 극장에서 상영된 이 영화는 미국 내에서 1천7백26만5천487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로튼 토마토 청중 점수는 98%다.

엔젤 스튜디오의 또 다른 영화인 다큐멘터리 ‘죽음 이후(After Death)’는 사람들이 죽은 후 다시 살아가는 경험을 조명했다. 지난 10월 개봉한 영화는 최대 2천730개 극장에서 개봉해 미국 내 티켓 판매액 1천1백47만6천750달러를 기록했다. 로튼 토마토 청중 점수는 87%다. 이명경 기자



영화 ‘자유의 소리’의 한 장면. ©엔젤스튜디오

인도 웨스트 벵골에서 집권여당 간부 총격범들에게 피살

무르시다바드 지역 당 사무총장 초두리 암살 당해
정체불명의 오토바이 탄 괴한들, 집단총격 후 잠적

인도 동부의 웨스트 벵골 주에서 집권 여당인 트리나몰의회당(TMC)의 지도자 시타안 초두리가 7일(현지시간) 정체불명의 총격범 다수에게 저격당해 목숨을 잃

었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다. 초두리는 콜카타시 북쪽 199km 거리에 위치한 무르시다바드 지역의 배렘포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당해 피

살되었다고 국내 언론들을 인용한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두리는 트리나몰 의회당의 무르시다바드 지역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65세의 초두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이닥친 한 무리의 총격범들에게 근접 사격을 당해 숨졌다고 발표했다. TMC지도자인 그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

되었지만 도착 후 곧 사망이 선고되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총격살인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진은 일단 피습 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의 기록 영상을 조사해 총격범들의 신원 파악부터 시작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차미레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발급금
-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기업신액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기업)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UL M SOUL

지하철



버스



따릉이



기후위기 대응까지



카드 한 장으로



월 65,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문의: 120 다산콜

민주당 나온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총선서 원내1당 돼야”

한동훈 오찬 후 결심 굳혀... “공감 넘어 의기투합”

더불어민주당을 나온 이상민 의원이 8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지난달 초 탈당을 선언한 이후 약 한달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의를 하기 전 이 의원 입당식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이 의원은 입당 소감을 말하며 “한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공감을 넘어서 의기투합했다. 오랜만에 정들었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한 위원장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한 말이 큰 울림으로 왔다”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모두에서 정답 찾겠다. 격차를 해소하겠다. 대화 중에는 그것만 국한한 게 아니고 한국 사회의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디지털 격차 등 전반적으로 포섭하는 개념으로서 말을 한 다음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그걸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혐오와 경멸 언동에 대한 단호한 엄중 조치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제가 그간 해왔던 의정 활동, 정치 활동의 중요한 어젠다와 딱 일치했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한 위원장을 지켜세우면서 “전혀 초보가 아니다. 그때 많이 배웠다”며 “전략적이고 소위 정치꾼처럼 공학적으로 이기겠다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나라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본인 인생을 다 투여하겠다는 점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전달받고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입당 각오에 대해서는 “당장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원내 1당이 돼야하지 않겠

나”라며 “정말 분발하고 많은 부족한 점과 결함을 빨리 보완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서 국민 편익을 위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총선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 지역구는 국민의힘에 험지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 지역구부터 챙길 것”이라며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과 같이 합동해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중부권에 마력하나마 갖고 있는 노력으로 총선 승리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넥타이 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왔다.

그는 “오늘 입당식을 하러 간단히 짐사림이 골라준 색인데 사실 좀 머뭇거렸다”

며 “마음의 장벽과 경계가 있었구나. 사실 이것 참 부질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의원의 활약을 직접 보면서 회의장에 들어왔다.

한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발전체주의가 주류가 됐고, 이 나라와 동포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라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 태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있게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 의원과 공통점을 가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말”이라며 “단순히 다신 한명이 당 옮긴 게 아니다. 이 의원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발전체주의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결단을 지지해 주고 동참해 준 총정의 지지자들 정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재 한은진 기자

여, ‘쌍특검법’ 공세 차단 주력... 야당에 재의결 촉구

한동훈 “민주, ‘이해충돌’ 단어 꺼낸 것 놀라워”

국민의힘이 8일 ‘쌍특검법(김건희-대장 동 특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며 조속한 재의결을 촉

구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

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라다”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쌍특검

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있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헌법상 권한에 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떠한 논리라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탄핵 주장을 꺼내는 것 자체가 무엇을 위해 쌍특검법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쌍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통령 내외 모욕주거라는 이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유 권한을 행사할 뿐인데 탄핵을 당하는 나라가 과연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데 대해 “쌍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 트랙을 진행해 놓고 지금은 재의결을 미루려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짚수에 불과하고, 특검법 목표가 수사 관철이 아닌, 총선 재점화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이후 국회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관례였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을 비대위원은 “도이치 추가조사 특검과 관련, 추가조사 사건은 제일 먼저 밝혀야 할 것이 지금 흐름이고, 사실관계”라며 “사실관계에 관한 한 어떠한 논란의 소지도 더 밝혀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가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대연 (도이치 특검) 20명의 특별검사가 동원돼야 하고, (기간) 석달, 넉달이 돼야 하는지, 변호사 한 분이 1주일이면 뒤집어 쓴다”며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렇게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제발 터무니 없는 싸움 좀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홍세희 최서진 한은진 기자

법원,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백광현 등 지난해 3월 이어 10월 당대표 직무정지 신청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위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유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해 당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사우투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지난해 10월18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권리당원 2023명을 소송인으로 하는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와 위증고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백씨는 이 대표가 잇따라 기소된 자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당헌 80조에 의거해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80조 3항을 통해 정지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씨는 지난해 3월에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당시 가처분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같은 해 6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권리당원이던 백씨는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여동준 홍연우 기자

이성윤 사의 표명... “윤석열 사단 청산에 최선의 노력”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에 서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저는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국민 편에서 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윤석열 사내비정



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4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든 사표를 제출했으나, 당시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점 등으로 인해 반려했다.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이 연구위원이 곧 총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출마할 뜻이 있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총선 사퇴 시한은 오는 11월까지다.

다만 이 연구위원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정유선 기자

동화약품

무좀, 이제 붓으로! 한번에!

*이 약은 단 1회 적용한다.

권순우 한국 최초 남자 프로테니스 통산 2회 우승

바르지오 원스 외용액 (테르비나핀염산염)

“이재명 서울대병원 이송은 업무방해”... 의사 단체 고발

이재명·천준호·정청래 서울중앙지검 고발
“불필요한 이송 고집해 병원 업무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이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천준호, 정청래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행태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 갑질”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될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를 강행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측은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이송 요청한 것은 부당하기 그지 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 특혜 요구이며, 국민들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앞지른 새치기”라고 했다.
이 대표 이송은 소방청의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부산에는 노후화된 의료헬기를 제외하면 한 대의 의료헬기만 운행되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를 이용해 의료헬기 공백 현상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 이송으로 1000만원 상

당의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을 두고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 습관 등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진료를 기다리다 죽어가는 국민들”이라며 “암 환자나 중증외상환자 같은 치료 시기가 중요한 환자들도 마찬가지로”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지방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왜 이송 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재훈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흉기 습격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이 두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이 대표 등을 고발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헬기를 통해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도착,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윤성원 전 차관 등 영장심사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분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진행된다.
대전지법은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331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부터 밤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이들이 구속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

련해 첫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만큼 원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인 윤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처음으로 조사를 벌였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부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

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일 뒤인 지난 4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사가 미뤄졌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초등생 자녀 둔 워킹맘들 “퇴사해야 하나”... 겨울방학 비상

아이 맡아줄 곳 없어 돌봄+방과후+학원 뺄뻔이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두 달에 걸친 초등학교 겨울방학이 최근 시작되면서 워킹맘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은 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 그리고 학원을 활용해 아이들의 방학 스케줄을 빈틈없이 짜야 한다.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는 방학에도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로 맘카페에는 최근 방학이 시작되면서 엄마들의 고민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돌봄교실이 9시에 시작해 아이를 배려 다주고 출근할 수가 없는데, 1학년인 딸 아이가 혼자 학교를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무슨 학원을 보내야 할까? “방학만 되면 아이들 도시락까지 싸 놓고 나오느라 더 힘들어오라는 등의 하소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임신과 출산, 어린아이를 돌보는 고군분투하며 견뎌온 워킹맘들이지만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은 좀처럼 낫지 않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학기 중에도 방과후 수업과 학원을 다니며 엄마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데, 방학이 되면 더 많은 돌봄 공백이 생기고 이는 더 많은 학원 스케줄로 채워진다.

학원비도 큰 부담이다.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학원에 붙들어 두려면 영어, 미술, 음악, 태권도, 수영 등 4-5과목은 기본이다. 초등학교 1인당 학원비가 월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허다하다.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키우는 워킹맘 B(43)씨는 “방학이라고 해도 바빠 사람이 없으니 학원 뺄뻔이 시키는 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여성들의 퇴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여성 고용률은 20대 후반 73.9%로 최고에 달하다가 30-34세 68.5%, 35-39세 구간에서 60.5%까지 급락했다. 20대 후반~30대 초반에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에 보내는 시점과 맞물리는 셈이다.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 단절되는 주요 원인으로 육아로 파악된다. 2022년 경력단절 여성 139만7000여명 가운데 가장 많은 42.7%가 육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26.3%는 결혼, 22.7%는 임신과 출산으로 회사를 떠났다. 결혼과 임신, 출산보다 육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직장을 떠나는 여성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맞벌이 부부 및 워킹맘 등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현재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다.
서울시도 올해부터 초등 저학년(6-8세)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주 4일은 오전 8시에 출근한 뒤 오후 2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주 1일만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근무 형태를 도입한다.
영아부터 유아기에 집중했던 육아 지원 연령이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운영위원은 이 같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마련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관건”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이 해결돼야 남녀 돌봄 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경 기자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한국판 나사(NASA)를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통과 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신형섭 기자

준법감시필 2022-11



푸른씨앗심고! 희망 미래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선택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자 10,000명 돌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퇴직급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좋은 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보다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급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회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좋은 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습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합니다.
- 믿을 수 있는 투자사결정 : 근로자 선택을 대신하여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콜센터 1644-0083 검색창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를 쳐보세요!

2023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낙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최소 5년 연속으로 세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인용한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3년에 4460만 건 이상의 낙태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Internet Archive Wayback Machine)이 캡처한 2023년 마지막 월드오미터 자료에 따르면, 낙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다른 주요 사망 원인들(암, 심혈관 질환)을 초과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인 전염성 질병은 지난해 129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암은 820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

자는 490만 명에 달했다.

음주로 인한 사망은 240만 명, HIV 또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160만 명,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0만 명 이상이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기타 사망 원인으로는 독감(50만 명)과 말라리아(3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중에 목숨을 잃은 산모는 30만 명 이상이었고, 5세 미만 어린이는 750만 명 이상이 불특정 질병과 원인으로 사망했다. 2023년에는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1만 7000명을 넘어섰고,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80만 명 이상이 있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23년의 전체 사망자 수는 6060만 명 이상으로 측정되었지만, 이 수치에는 낙태가 사망으로 계산되지 않았다. 낙태가 사망으로 포함된다면, 작년의 전체 사망자 수는 1억 명을 초과하며, 그중 낙태가 4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에서 낙태권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법원 밖에 있던 수백 명의 생명 수호 운동가들이 환영하고 있다. ©Nicole Alcindor/Christian Post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낙태 건수는 각각 4240만 건과 4260만 건으로, 이는 이후 몇 년간 낙태 건수보다 약간 낮

았지만, 여전히 낙태는 두 해 동안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다.
2023년에 수행된 낙태 건수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도브스 대 잭슨 여성건강보장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서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결한 이후 첫 번째 해였다. 이 판결은 몇 주에서 낙태 절차를 제한하거나 거의 대부분 금지하는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

태아 생명 옹호 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 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는 '도브스 판결' 이후 1년 반 동안 제정된 생명보호법이 (법적 문제가 많을 수 있음) 16만 6239건의 낙태를 방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낙태 권리 지지 단체인 '생식 권리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에 따르면, 전 세계의 가임기 여성 인구 중 35%가 낙태가 가능한 77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캐나다, 호주, 그리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와 같은 서구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가임기 여성 중 25%는 사회적, 경제적 다양한 이유로 낙태가 허용된 12개 국가에 살고 있다.

가임기 여성 중 12%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가 허용되는 47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22%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낙태가 허용된 42개 국가에 살고 있다. 낙태가 전면 금지된 22개 국가에 거주하는 여성은 단 6%에 불과하며, 이 중 대부분은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하고 있다.

유니 김 기자

미남침례회 선교팀, 쿠바서 5천여 명 예수 영접 이끌어

지난해 말, 미국 남침례회(SBC)의 단기 선교팀이 쿠바를 방문하여 약 5천 명의 현지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배티스트프레스(B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침례회(Florida Baptists Convention) 지도자 8명은 서부 쿠바 침례회(Western Cuba Baptist Convention)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8일 동안 복음 전도와 설교를 진행해 4820명이 결심했다. 플로리다 침례회 지도부는 두 팀으로 나누어, 빌라 클라라와 시엔푸에고스 지역에 위치한 45개 교회 및 선교지에서 설교했다.

플로리다 침례회는 1997년부터 서부 쿠바 침례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파트너십 기간 동안 쿠바를 여러 차례 방문한 플로리다 침례회 선교 및 사역 촉진 담당자인 마이클 다우다는 "많은 쿠바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플로리다의 제1 팔메토 침례교회의 담임이자 선교팀 일원인 필립 햄 목사는 "쿠바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햄 목사는 "그들은 매우 환대했고 친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대한 진지한 갈망을 갖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세인트 어거스틴의 앤서니 시티 침례



서부 쿠바 침례회(WCBC) 산하의 지역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배티스트프레스

교회의 원로 목사인 프레드 피츠는 이번 여행이 그의 첫 번째 쿠바 방문이었다. 그는 함께 일한 사람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이들 선교사들은 쿠바의 다른 지역에서 온 평신도들이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신자들이었다"고 말했다.

피츠는 쿠바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나라인 쿠바에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동시에 성경에 정통하고 훈련된 학생들"이라며 "사람들은 매우 수용적이었다. 그들은 환영했고 친근했으며 하나님과 그들의 말씀으로부터 희망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쿠바의 교회와 사람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마누엘 바라호나 목사는 쿠바 서부 선교여행을 갈 계획이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일들이 해결되어 참가할 수 있었다. 보인턴 비치의 웨스트사이드 제1침례교회 담임목사인 그는 "이 여행은 여러 면에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며 "쿠바 서부의 교회는 살아있고 건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바라호나 목사는 "그곳에 있는 동안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이었다"며 "나는 계속해서 무엇이든 하고,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침례회 남동부 지역 촉진 담당자 알 페르난데스 목사는 이번이 네 번째 쿠바 방문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특히 "복음이 불길처럼 확산되는 증거를 보았다"고 했다.

마이애미의 러브 언리미티드 침례교회 담임목사인 그는 쿠바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주일에 교인들에게 쿠바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소개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영적 수확도 컸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심할 때마다 사탄 역사가 일어났다고 다우다는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행 중에 전기와 상수도가 끊기기도 했고, 무더위와 모기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으며, 사역은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이어졌다. 언어적 장벽이 있었지만 극복되었다고 했다.

햄 목사는 "이번 선교 여행에 엄청난 준비 작업이 들어갔다"며 "현지 목회자들과 교단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역과 쿠바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BP에 따르면, 현재 서부 쿠바 침례회 지도자들은 복음 전도와 영적 수확 이후 새 신자 교육과 제자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유진 김 기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 사용"... 잔해 공개

"러시아 미사일과 여러 면에서 달라"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우크라이나나 그 증거로 미사일 잔해를 공개했다.

자유유럽방송(RFE)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방검찰청의 드미트로 추벤코 대변인은 6일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증거라며 미사일 잔해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2일 하르키우를 강타한 미사일 중 하나를 공개하면서, 러시아산 미사일과는 시각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방식은 그리 현대적이지 않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차이가 있다"면서 "이 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 중 하나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직경이 약간 더 크고, 노즐이나 후면 부품 등이 다르면서 "우리는 이것이 북한산 미사일 일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미사일의 정확한 모델명을 밝히진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하르키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우크라이나나 그 증거로 미사일 잔해를 공개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방검찰청의 드미트로 추벤코 대변인이 북한산 미사일로 추정되는 잔해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모습. ©X

우를 공격, 2명이 숨지고 60명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현호 기자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 속 단독주택 1년에 1억씩 올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여가, 워라벨, 쾌적성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늘어나자 주택 트렌드도 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립된 아파트가 아닌 독립성과 쾌적성을 갖춘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편리함은 물론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통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부 일대, 주요 입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5월 공급된 L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5억 2,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1월 9억 7,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 6개월 만에 4억 5,000만원이 올랐다. 1년에 1억씩씩 오르는 셈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2018년 7월 공급된 K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 7억 1,900만원 대비 지난해 5월 10억 1,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브랜드가 적용 됐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2월 공급된 G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원 대비 2021년 11월

11억에 거래돼 4년 9개월만에 5억 2,400만원이 뛰었다.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오른 것이며, 1년에 1억을 초과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적용되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만큼 1년에 1억씩 오르는 등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군 건설사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적용됐으며,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분양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안전한 사업신뢰성을 확보한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지로 지어진다. 단지는 계약금 5% 무이자 대출 지원, 중도금(50%) 안심 확정금리 4.5%(이자후 불체)를 적용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낮췄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 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게 자연환경,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숲공원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 도심도 가까워 인프라이용이 편리한 것이다. 인근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인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만큼 훌륭한

한 채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다수 계획된 교통호재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창동역 구간 지하화 문제가 해결된 GTX-C노선 사업도 올해 착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어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위치해

문의: 031-858-9800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시행/수탁 **모공혁신빌** 시공 **현대건설** 시행/위탁 **미래개발2**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주된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개발 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행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중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031)858-9800

이스라엘 대사 “예루살렘 평화 위해 기도해주세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아키바 토르 대사 영상 메시지 공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가 8일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아키바 토르 대사의 영상 메시지를 받아 전국과 해외 성시화운동 등에 공유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무찌르고 그곳에 억류되어 있는 100명 이상의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르 대사는 “첫째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

여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교회에서 그 인질들의 운명을 기억하고 그들의 귀환을 위해 기도하는 행사와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의 교회나 모임에서 그 인질들을 위한 빈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 인질들의 사진들을 기독교 소셜 미디어와 일반 소셜 미디어에 올려달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 그들의 의식을 높이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세 번째 방법은 교회들이 가자 주변에서 파괴된 이스라엘 도시와 마을의 재건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하마스의 공격으로) 약 20 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영상 메시지 속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영상 캡처

이어 “만약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협력 단체들이 있다”며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협력 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돕고

지원하는 네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이제 이스라엘과 성지를 다시 방문할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7일,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투해 대부분 민간인이었던 남녀 어린이 등 1,200여 명

을 살해하고 240여 명을 인질로 납치한 끔찍한 테러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감사 관순철 변호사,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을 방문해 아키바 토르 대사와 면담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이 기도운동에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중현 목사)이 협력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하마스에 잡힌 인질들의 사진과 기도제목을 넣은 홍보물을 만들어 전국과 해외 성시화운동 그리고 언론에 공유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기도제목으로 △인질들이 속히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극제사화가 이스라엘 남부지역 전쟁 피해자 가족 돕기와 가자지

구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가 유지되도록 △성경의 땅 이스라엘과 한국교회의 우호 협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이스라엘 인질들이 속히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며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많은 호응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키바 토르 주한 대사의 1분 53초 분량의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영상 메시지를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시청한 후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살롬나비 “2024년, 공동선과 인류애 추구하자”



김상복 목사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롬나비)가 ‘공동선과 인류애 추구하자’라는 제목의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2024년에는 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과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되어야 한다”며 “성경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이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 곧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선행될 때, 공동선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타자에 대한 배려”라며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으로 인해 갈등은 언제나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름’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언제나 양보와 배려로 극복하고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세대 간

의 갈등이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비록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선행된다면, 갈등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살롬나비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취업과 실업은 가장 큰 사회적 과제”라며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2024년에는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배금주의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한 경쟁에서 살아야 하고, 돈이라는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을 추구한다”며 “2024년에는 인간미의 회복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타자는 북한 주민이고 중국을 떠돌며 고통받는 탈북자들이고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이라며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야 하겠다. 더 나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한 간의 대화와 공존의 길이 모색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도 국가로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들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맞은 인류애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먼저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마스의 무력 공격으로 2023년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2만명이 넘는 희생자를 내면서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어져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조현삼 목사 “2024년 모든 것을 누리는 해”

서울광명교회 조현삼 목사가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2024년은 모든 것을 누리는 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목사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며 감탄했다”며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고난도 아픔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주셨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의 후손이 복이 있다.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했다.

또한 “다윗이 존귀를 누리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존귀를 누리다 죽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예, 우리에게도 주셨다”며 “우리는 다윗처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다. 다윗은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고 다짐했다. 우리 또한 이 다짐을 하고 이 복을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누리라고 했다. 로마교회 성도들



조현삼 목사 ©서울광명교회

만이나 우리도 구원받았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을 누리라고 하신다”며 “우리는 누려야 한다. 마음이 편하면 그것을 누려야 한다. 사람과 화목하면 그것을 누려야 한다. 편안하면 불안해 하지 말고 그 평안을 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말씀을 받았다. 말씀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받은 것은, 명령을 받은 것은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고 그 복을 누리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되게 하셨다”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잘 자라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하셨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힘줘 다짐하셨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2024년은 모든 것을 누리는 해”라며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새해에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로 살 것”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범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구원론: 영광스러운 세계(3)

최더함 박사
Th.D. 바로선개혁교회
담임목사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체를 가진 성도는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마 13:43)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출 34:35).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에 둘러싸였습니다(마 17:2).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 보시면 그 광채가 깃들 것입니다.

4) 또 영생을 누리는 성도의 특징은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3)
5) 또 부활한 우리 몸은 고전 15:43에 따르면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이 매우 강한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가진 연합함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부활의 몸은 변과 노쇠함을 자유로울 뿐 아니라 온전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진다거나 어린이들의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영웅들이 소유하고 있는 초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안 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

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6)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는 영화의 때에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단어를 놓고 ‘반육체적’이라고 해석하고 영동한 방향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성품과 활동이 일치하는 새로운 전인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롬 11이 말하듯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느” 어떤 것입니다. 웨인 그루텐은 “이 세대의 육신과 특징에 매인 바되고 죄악된 의지에 의해 다스린 바 된 육체의 몸이 성령의 원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인 몸”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가히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될 것입니다. 원래 창조된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

상을 지나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오른 자를 고전 21:5에서는 ‘신령한 자라 칭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4. 결어
상상해 보세요. 부활을 통해 영화로운 상태가 된 성도는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신령한 자가 되어 천사들을 부르며 만국의 왕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우리에게 그의 부활의 몸과 같은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미리 목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증언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을 되면 우리가 그와 같

으리라”(요일 3:2)
지금 우리는 흠에 속하였으므로 흠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의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어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죽음을 별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두려워서 회사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학교를 졸업해야 천국학교에 갑니다. 죽음을 졸업입니다.
한편으로 부활의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거나 잘못 해석하는 일을 경피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새로운 형체를 주십니다. 이 새로운 형체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완전

히 지금 내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형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다음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므로 즉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새로운 모습이지만 전혀 알아볼 수 없을만큼 판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은혜에 따라 최고의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미래가 확실하게 예정되었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책무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모범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아름다운 성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독특하고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조화롭게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작동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성을 말할 때 통일성과의 균형을 강조한다. 가장이나 모든 사회기관에도 다양성과 통일성이 필요하다. 반면 사회정의의 이념에서 부르짖는 다양성(diversity)은 평등(equality)과 포용(inclusion)이라는 용어와 붙어 다닌다. 그들이 강조하는 DEI의 이념은 다양한 약자, 소수자 집단을 사회의 주류 집단이 평등하게 대우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 분명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이먼 르베이(Simon LeVay)는 동성애자이면서 유전학 연구를 통해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동성에 편향적 주장을 펼쳤던 게이 신경과학자이다. 그는 LGBT 잡지에 젠더불쾌증(자신의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남녀라는 성 정체성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증상)을 가진 아이

들의 말을 너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소한 사춘기가 끝나기 전에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라는 젠더주의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젠더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가수 베티 미들러와 작가 JK 로울링, 이 두 여성은 모두 LGBTQ 운동의 오랜 지지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트랜스젠더 이념 때문에 여성성이 손상받는 것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후 그들의 트윗은 젠더주의자들에게 강력하고도 저속한 방식의 비난받았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그랜드슬램 대회에서의 우승만 18회 했던 여자 테니스계의 전설적 선수이다. 그녀는 1980년대 레즈비언임을 밝혀 큰 물의를 일으켰고, 지난 수십 년간 LGBT 권의 옹호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최근에 그녀는 남성에서 트랜스-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들이 여성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성 소수자(LGBT) 운동 선수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운동선수 연맹(Athlete Ally)’은 그녀의 발언이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그녀를 연맹 자문위원회에서 축출하고, 홍보대사 임명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를 비평하는 사람들은 젠더주의 성 혁명가들에게 공격적인 질책을 받게 된다. 그렇게 비평한 사

람들은 트랜스 혐오 혹은 증오, 심지어 범죄자로 낙인찍힌다. 특히 LGBTQ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될 때 더욱 강하고 신랄한 비판을 받는다. 한 트랜스젠더 활동가는 이들의 발언에 “무책임한 것 이상”이라는 딱지를 붙였으며, 이는 그들 커뮤니티가 괴롭힐 공격의 대상임을 암시한다. 이후 르베이, 미들러, 로울링, 나브라틸로바는 LGBTQ 집단 내에서 집중적인 비판과 조리돌림을 당하고, 그들 사회에서 매장된다.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집단은 많은 소수자, 약자들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 마르크스 이념에서 노동자와 농민으로부터, 페미니즘에서 여성, 인종주의에서 유색인종, 성 혁명 이념에서 동성애자, 소아 청소년, 트랜스젠더 같은 성소수자가 있다. 이들은 다양한 소수자들을 양산하면서 이들이 주류세력을 공격하도록 부추긴다. 노동운동, 페미니즘 운동, 흑인 혹은 소수인종 운동, 동성애 운동, 학생 운동, 등을 거쳐 최신의 이슈가 젠더주의 운동이다. 이들은 주류세력을 쫓아 못하게 묶을 수 있는 소수자 의제 개발을 원하고 있다. 젠더 이슈를 가장 앞세우는 이유는 만약 남자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게 만들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들의 주장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르베이의 게이 집단이나, 미들러나 로울링의 페미니스트 집단, 나브라틸로바

의 레즈비언 집단 등 다른 어떤 소수자 집단보다 트랜스젠더 집단을 통해 주류 집단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로 근래에 미국에서 젠더 이슈가 심각하게 떠오른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사춘기 이전 어린이들의 성전환 시도가 급증할 것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부모나 의사는 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혐오주의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자녀를 빼앗기거나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다.
결국 사회정의가 주장하는 것은 획일적, 집단적 다양성이며,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며, 주류 집단이 이것을 무조건 포용하라는 뜻이다. 성경의 DEI와는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라고 명령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정의를 전적으로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 탈레미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사회정의의 이념에 의해 사회 전체의 제도나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소수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마 18:14)처럼, 내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나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새해 결심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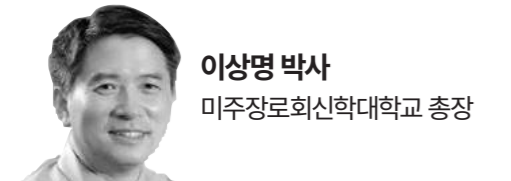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성탄절까지 달려가려면 꽤 먼 것 같이 느껴지는 새해이지만 아이들은 세뱃돈을 챙기는 설렘으로 코를 바고 함박웃음과 함께 절거림 바쁘습니다. 이처럼 새해는 말 그대로 ‘새것’에 대한 기대로 충만합니다.
다시 돌아온 새해이지만, 새해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우선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하는 것은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의 문턱을 넘은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언했기에 새해에 새결심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심 내용은 개인의 역량입니다. 어떤 종류의 새해 결심을 하는지 알아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새해 결심을 하되 그 결심 내용을 신앙 안에서 최대한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결심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신앙을 데우려면 뜨거운 현장에 오셔야 합니다. 몸이 추우면 불 앞에 서서 불을

짜야 하듯, 기도하는 현장에서 영적 열기로 달궈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맘에 안 든다고, 나 홀로 선언하는 순간,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새해에 밝아 오는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 아무리 멀어도 동이 뜨는 바닷가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소신을 따라 절을 찾기도 하고 모스크를 찾기도 할 것입니다. 하물며,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은 성도들이 새것에 대한 기대와 결심을 촉구하는 현장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시대라고 하지만, 현장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큼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엘새)에 성도들이 어린자녀들까지 깨워 최선을 다해 나오는 모습은 열심을 넘어서 감동입니다. 못 올 이유가 만 가지라도 변명하지 않고, 피곤해도 더 일찍 일어나고, 졸음이 와도 허벅지를 꼬집으며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새벽을 깨우는 베델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결심 내용들은 베델이 베델되는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아멘!’ 외치면 함께 기도하는 소원과 결심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성령 다가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는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하나님 비전과 목시적 영성으로 수놓는 2024년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동터왔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이 기독교 독자와 온 누리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산의 정상까지 3시간, 하산하는데 2시간, 산 정상에서 머문 시간 30분.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산 정상에서 머문 30분. 나머지 시간은 행복을 향한 우리의 시간 여정입니다. 인생 정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잠시 머무는 시간보다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산기슭에 있던 정상에 있던 참사람만이 시간의 보폭을 따라 복된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흐릅니다. 바람은 어디론가 불고 강물은 흐르고 바다는 출렁입니다. 차고 이지러지는 달도, 지고 뜨는 태양도 살아 있음에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인간의 삶도 그러합니다. 태어나고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삶의 흔적을 역사로 남깁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삶의 흔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즉 살아있는 참사람만이 과거를 반추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 비전의 사람이 써 내려 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물리적 시간과 상대적인 정서적 시간 사이를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

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성장 과정 속 시간의 상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간은 기어갔다. 청년으로 꿈꾸고 있을 때 시간은 걸어갔다. 장년으로 성장할 때 시간은 달음질처럼 갔다. 늙어서는 시간이 날아갔다. 내가 먼 나라의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시간은 영원히 가버렸다. 내가 시간을 버렸더니 이제는 시간이 나를 버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부단히 반추해야 하고 희망찬 미래를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으로 전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목시는 비전의 다른 이름입니다. 목시를 잃은 이는 현실에 안주할 뿐, 위를 보는 안목이 없습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18).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길로 행합니다. 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목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이 되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중심적인 거짓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삽니다. 이 모두가 목시가 없을 때 일어납니다. 비전은 개인적인 포부와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역경과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 빛납니다.

노련한 뱀사공은 험난한 파도 속에서 탄생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뱀사공을 길러 낼 수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영성의 무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욱 치열한 전쟁은 외부로 드러난 전쟁이 아니라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내밀한 전쟁입니다. 유희 없는 진공 상태에서 안일하게 살려는 자제와 매서운 겨울 폭풍과도 같은 신앙의 시련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은 자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믿음이 도전받을 때, 우리가 목시적 영성에 눈 뜨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역사의 참된 주인임을 일깨우는 비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허무주의나 패배주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목시적 영성으로 수놓는 신앙은 우리가 평온한 일상 속에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나 혹독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 영안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을 보기 위해 필히 간직해야 할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엢 2:10, 새번역). 2024년이 끝날 때쯤, 돌아보아 하나님 비전을 따라 산 한해였다고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社說

북한이 새해부터 무력시위에 나선 까닭

북한이 새해 들어 서해상에 연이어 포사격을 가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5.6일 서해 백령연평도 방향으로 200여 발의 포를 쏜 데 이어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 구역에 또다시 88발의 포탄을 쏘았다. 우리 군은 북한의 5일 포사격 때는 즉각 응사했으나 6.7일엔 북한이 북측 내륙 등 자기 지역에 쏘았다는 이유로 맞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이 새해 벽두부터 보란 듯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김정은이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며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 선상에 있다. 연초부터 대남 도발로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킴으로써 4월에 있을 총선의 판도를 흔들고 자신의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리려는 의도다.

군과 정보 당국은 올해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한미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북이 잦은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안 포사격은 시작에 불과하고 금용-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심지어 최전방 일부 지역에 침투해 주민 납치극을 벌이는 '하마스식'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 대남 핵 타격을 목표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매년 우리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적절한 시기를 노려 무력시위에 나선 전력 있다. 2002년 월드컵 직전에 '연평해전을 일으킨 것이나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을 공격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도의 계산된 전술이다. 이번 무력시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저들의 변함없는 대남 전략일 뿐이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의 분열이다. 연이은 도발의 목적이 우리끼리 싸우는 '남남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되는 건 저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말이다. NLL, 북쪽 자기 해상에 포를 쏜 것만 봐도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 군이 상응하는 수준의 맞대응할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치명적일지를 이미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가진 재래식 무기는 우리 군의 화력을 당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를 보며 북한 정권의 대남 전략과 노림수는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전면적인 전쟁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도발이 남한 정부의 경색된 대북관계에 있다며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 인터넷 공간에

는 미군 핵잠수함 및 압초에 의한 충돌 좌초설 등 술한 가짜뉴스가 국민을 현혹했다. 진보진영에서 정부의 합동조사단 발표와는 별개로 이 같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는 우리 측의 피해가 없어 아직 여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갔을 때 안보 불안에 따른 책임 문제가 4월 총선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북한의 포사격보다 몇 배나 위험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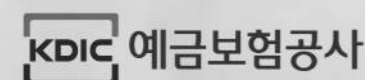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아무리 야당이더라도 정부 탓을 하기 전에 최소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내는 게 우선이 아닌가. 북한으로선 총선이 있는 올해 이런 노림수로 끊임없이 대남 분열과 갈등을 부추길 게 뻔하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다를 바 없었다며 역대 한국 정부의 모든 대북-통일 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북정책의 근간인 '햇볕 정책'을 싸잡아 비난하고 아예 폐기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별 반응이 없다. 도리어 지난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에서 참석한 문 전 대통령 등 참석자들 앞에서 "김대중 정신을 되살리자"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자"라는 말만 난무했다. 북한에 온갖 것을 다 퍼주면서 "살은 소대거리"란 소리를 들었던 이들의 평화 타령이 시대착오적이란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아는 데 설마 이들을 모른단 말인가. 북한이 핵 무장하도록 시간을 벌아준 그 '가짜 평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선언한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의 가면을 벗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3대 세습에 이어 4대에 이르는 영구 왕조시대를 꿈꾸며 내부 혼란과 반발을 남한에 대한 공격으로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핵무장의 궁극적인 목적도 김씨 일가 독재 체제 유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술책의 일환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군이 반격할 선은 넘지 않되 대남 정치 선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저들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말뿐인 평화, '가짜 평화'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핵 앞에 무릎 꿇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게 아닌 저들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에서 나온다. 그런 '평화'만이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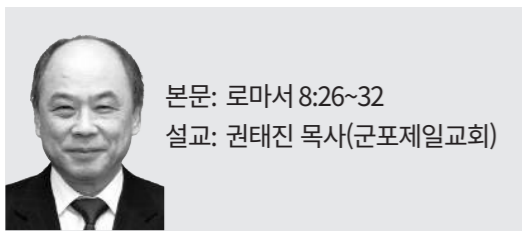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본문: 로마서 8:26-32
설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1. 지난날 보호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제일의 감사는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늘 감사를 기억하고 보호의 의무와 존경하는 마음을 다할 때 미래의 자신도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믿음의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려주었습니다.

“극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2:4-5)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고 빛에 속하게 된 것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다면 내 안에 소금이 없음을 깨닫고 같음이 생긴다면 내 마음에 빛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선악의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해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화해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화해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 의 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계 2:21)

제일 먼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2:37-38)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고 마음에 찢림이 옵니다. 그때 회개하면 성령을 받지만 그 말씀에 대적하면 실패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적했고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대적하여 죽였습니다. 초대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4)

거짓말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환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계2:23)

감사하고 화해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2. 약속된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예수님을 믿고 고난, 외로움, 박해, 가난 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롬8:21)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썩어집니다. 그것에 종 노릇 하지 말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전2:22)

해 아래 수고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하나의 풀과 꽃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빨리 성장하지만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빨리 썩어갑니다. 금이 용광로 속에서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기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혼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참 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이 갈멜산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왕상18:37-40)

기도가 응답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멸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같이 기도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8:30)

하나님은 부른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전10:13)

믿는 자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뜨거운 광야 길도 구름 기둥으로 덮여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으나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감당하게 했고 앞으로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제4차 일일 24시간 특별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견디고, 보호받았고 앞으로도 보호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장암 등 발병률 낮은 젊은 연령대, 장내 유익균 많아”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

인체에 유익한 세균으로 알려진 유산균 및 낙산균이 대장암, 대장선종을 비롯한 대장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연구팀(제1저자 송진희 연구교수)은 대장암 등 대장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 여성 및 55세 이하 젊은 연령대에서 유산균(젓산균), 낙산균 등 장내 유익균이 많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의 한 해 발생자 수는 32만751명으로 폐암

을 제치고 국내 발병률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발병률 1위인 갑상선암(35만303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2019년 동일 조사에서 4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아주 가파른 성장세다.

이 같은 대장암의 발병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가족력, 흡연 여부, 식습관 등이 있는데,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발병률이 약 2배 높고, 발생 위치에도 차이가 있어 성호르몬이 발병 기전(메커니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장 내 미생물 환경을 조성하는 '장내 세균'이 대장암 발병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나 암 발병의 원리와 치료법을 밝혀낼 단서로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고 동물실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나영 교수팀은 성차-연령 등의 요인과 장내세균총의 변화, 그리고 대장암 발병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해 실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장선종 및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대변 데이터가 사

용됐다. 그 결과 대장선종이나 대장암을 앓은 환자보다 그렇지 않은 건강한 대조군에서 장내 유익균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특히 여성 55세 이하 연령에서 각각 유산균(젓산균)과 낙산균 분포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통계적으로도 남성, 고령에 비해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은 집단인데, 유산균, 낙산균 등 장내 유익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연구팀의 분석이다.

이번 연구는 장내 세균과 대장선종, 대장암 발병의 관계에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까지 심

도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성별에 따른 유익균 분포를 반영해 유산균 등과 대장 질환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면, 대장암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영 교수는 “여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라며 “건강한 여성의 장내세균총에서 발견되는 유익균을 분석해 대장암 예방 및 치료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연구 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9~2024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최근 국제 학술지 'Gut and Liver'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서다는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빛나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평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시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구청 떡국떡, 가래떡 세일합니다 (쌀 국내산 100%)



민수경 목사

- 흰떡국 1말 ~~7만원~~ → 5만5천원
- 현미떡국 1말 ~~8만원~~ → 6만5천원
- 오색떡국 1말 ~~8만원~~ → 6만5천원
- 흑미단호박시루떡 1말

~~14만원~~ → 10만5천원

▶ YouTube

★ 모든 떡 세일 ★ ★ 택배비 포함 ★
★ 국내산 쌀 100% ★

• 입금 : 농협 (예금주 : 민수경) 352-1977-6940-03

010-7143-7871

※ 떡 후원이사 - 7,000명 4개 국어 찬송가 부르기 선교회



원장 백만기 목사
미국국제대학교 부총장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화 목회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원은 확실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목회자, 선교사, 기관 사역자들과 같은 전문 목회 사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도사 양성 과정 (총회신학)

신학	3년	♣ 세례 받은 자 소명자
목회학		♣ 1년 3학기 운영
여목회학	2년	♣ 목회자 사모 목회경력 인정
성경연구		

목사 양성 과정 (목회연구원)

신학	3년	♣ 신학 및 대학졸업자
목회학		♣ 1년 3학기 운영
선교학	2년	♣ 성경지도사 위원 등록
기독교상담		

목사 심화 과정 (목회학술원)

신학	3년	♣ 연구원 및 신학대학원 졸업자
목회학		♣ 총회신학연구원 교수로 활동
선교학	2년	♣ 성경교육사 위원 등록
기독교상담		

통신과정

나와서 수강할 없는 소명자를 위한 과정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공부하여 능력별로 졸업

학적복원 프로그램

• 출신학교가 없어지신 분
• 개인사정으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시는 분

자격증 과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목회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과정입니다. (청소년목회상담사, 기독교상담사, 도형심리상담사 등)

• 본원은 장학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 본원은 재학 중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로 임직할 수 있으며 선교사 지망자는 파송합니다.
<미국 신학대학교 편입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목사 안수 및 총회 가입도 가능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신학연구원**

074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20 7호선 신봉역 3번출구
☎(02)849-9395 www.hdts.or.kr

동해한옥

매매가 38억

연수원, 힐링센터, 기도원, 요양원, 한옥스테이카페 추천
- 면적: 1,724㎡ (총 6채)
- 위치: 강원도특별자치 동해시청 앞

주인문의 010-4071-1011



보건복지부 등록 민간자격 2015-004219

노인복지사

2024년 1월 15일 개강

노인복지상담사 2급 교육

교육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종로5가역 2번 출구)

등록비: 50만원

농협 301-0339-6097-81
[예금주: 한국노인복지상담협회]

한국노인복지상담협회
010-5240-6540 임성아 교수
010-9643-6356 조상원 교수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 청정지역입니다
2. 교회, 기도원, 수련원, 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군포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4.5~6%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대한민국을 세계1위로 만들 미래 성장 동력사업

기승.전.프랜차이즈? 세상을 바꿀 사업이 있는데 왜 불나방처럼 뛰어드시죠??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양 산업등 정체된 사업에서 업종 전환을 원하는 업체 78억 인구를 매료시킬 강력한 아이템 (투자자 아이템 AtoZ 상세내용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전달)

1구좌 1억원 투자시 법인 1%지분 배당 : (80구좌 제한 후 커뮤니티로 시너지 발생 W => \$ 가까운 미래 단위 함께 바꿈이다) * 씨(투자) 뿌리고 꽃(발전) 피우고 열매(수익결실) 맺는 모습을 투자후 단계단계 마다 보여드리며 자손대대로 돈걱정 없이 살것입니다

변호사 공증 후 법인지분서류 전달

국민은행 975901-00-026853
조현철 헬프사람넷
zhc2000@naver.com, 010 9897 2003
이체 후 이메일 및 문자 보내주세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
※ 본 광고는 역사에 길이 남을것임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장대수 목사
시흥시인의교회 담임목사
대한기독교부흥사회의 대표회장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 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내어줌의 공동체

크리스천북뉴스 서평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나를 내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평판, 소소하게 누려왔던 안정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웬지 비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치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하게 수용 받고 싶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우리는 수용 받고 사랑을 누립니다.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시 에이브레이크로 향합니다. 자신의 명성은 이 공동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로 인정받고 수용 받는 곳이었습니다. 나우웬은 이곳에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영적 통찰을 얻습니다. 참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을 보다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우웬은 1996년 9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숨을 거

둡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글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가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책은 로드리고 공중그네 곡예단과의 만남에 기초한 논픽션 창작물이었습니다. 기존의 신앙서적과는 결이 다른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선한 영적 통찰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캐럴린 휘트나-브라운(Carolyn Whitney-brown)은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거주했던 캐나다 작가입니다. 헨리 나우웬 유작 센터의 출판위원회에서는 나우웬의 미간행 원고를 그에게 창작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캐럴린은 나우웬의 미완성 원고들을 최대한 살려서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Flying, Falling, Catching)를 완성했습니다. 나우웬의 사후 25년 만에 우리는 다시금 그의 글을 마주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웬은 우연한 기회에 서커스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때 로드리고 공중그네 곡예단의 공연 또한 보게 됩니다. 위험해 보였던 공연이었기에 처음에는 불안인 줄 알았는데, 나우웬은 이후에 그것이 엄청난 전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자신을 감동시키고 매료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부터 나우웬은 공중그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자유, 신뢰, 열정, 팀워크. 설명할 수 없는 매력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여러 저술과 많은 강의로 유명했던 그였지만, 어린이와 같은 팬의 마음으로 나우웬은 공중극예단을 대합니다. 나우

웬의 진심과 따뜻함은 어느새 로드리고 공중그네 곡예단에 게도 전달됩니다. 어느새 그들은 친한 친구 혹은 가족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서로를 통해 위안을 얻고 친밀함을 누립니다. 나우웬은 공중그네 곡예단의 공연뿐만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공중그네를 보여준 로드리고는 나우웬에게 이와 같이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은 날아야 하고 잡는 사람은 잡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은 잡는 사람이 알아서 해 줄 것을 믿고 양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우웬에게 깊은 각인됩니다. 참된 신뢰는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 놓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모두 내어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헨리 나우웬의 마지막 발견을 이 책을 통해 봅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갑작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참된 공동체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유와 신뢰, 공동체, 몸대 대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고자 부단히 노력했음을 봅니다. 참된 공동체는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행위는 상대를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비로소 공동체는 비참합니다. 참 자유를 누립니다. 날고, 떨어지고, 붙잡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종현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명예편집위원

1월, 작가들의 말말말



인생은 위대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접어야 할 마음 잡고, 해야 할 일을 할 때 위대해진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것, 관계 하나, 약속 하나 지켜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에 갑자기 위대하고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 향유 옥함을 깨뜨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가. 다윗처럼, 깨뜨리지 못했던 나의 한계를 깨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무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다. 평범함은 늘 하던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것이고, 위대함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다.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는 법은 없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나라와 그 의에 충동하는 것이 있을 때, 차열하게 이루어고 애써오던 것이 성취되려는 문턱에서조차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언제든 내려놓아야 제자이고 참 그리스도인이다.

안호성 '신자방법'



히브리 성경의 제목에 있어, 앞선 모세 오경의 말씀들은 첫머리의 말들을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씀은 중심인물이 되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그의 이름은 단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닌

그 이름이 가진 뜻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의 이름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삼는 자의 삶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장자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인생의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는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세의 수종으로서 시작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와 중' 모세를 섬김에 충성하여 여호수아의 마지막에는 모세와 같이 그 자신 또한 '여호와와 중'이라는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됩니다(수 1:1, 24:29). 여호수아는 크게 정복과 분배로 나뉩니다(정복: 1-12장, 분배: 13-24장). 기업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과 기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업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임경목 '여호수아'



마침내 히브리 민족은 넘실거리는 홍해와 그 속에 수장된 이집트 군사들을 뒤로 한 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의 여정을 시작했다. 당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였고 다른 하나는 '홍해의 광야 길이'였다(출13:18-18).

두 길 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로 가면 머칠이 되지 않아 약속의 땅에 당도할 수 있었고, '홍해의 광야' 같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 길이였기 때문에 실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였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또한,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신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 결국은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반복하신다 한들 그 누구도 그분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약속에 재약을 두시고 역사 속에서 끝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성경이 줄곧 강조하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사무엘하 7장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예환 '성경 365: 구역편'

이중직 목회자의 신학

신간 '텐트메이커'



혹은 변형된 교회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계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안 되는 주제다. 이중직 논의는 우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저자는 목회 현장과 육체노동 현장을 오가며 땀으로 사유하는 개신교 목회자다. 그는 지속 가능한 교회와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주제에 대한 자기서사적 신학을 책에 담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은 『텐트메이커』를 출간하는 데 큰 힘을 주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가져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잠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살후 3:8)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 일정한 장소와 제도 속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곁에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재정을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르렀다. 시행착오 끝에 목회와 병행하기에 용이한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저출산? 국가는 해결 못해... 해답은 하나님께”

황선우 작가 「20대 아빠의 저출산 Talk」 출간



초저출산 시대인 오늘날을 향해 어느 아버지가 메시지를 던졌다. 26세에 결혼하고 27세에 아기를 가진 황선우 작가가 책 『20대 아빠의 저출산 Talk』를 펴냈다. 황 작가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하나님께서 저출산 문제 역시도 해결해줄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주로 말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교회와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복지 정책은 선별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하나님이 이루실 가정의 회복,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 이로써 생겨날 성경적인 문화만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가정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황 작가는 “저출산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삶의 문제이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며 가정에 대한 소망보다는 상처가 컸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 덕분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

져 결혼까지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작가는 “대학 졸업 3개월만에 결혼했다”고 한다. 그는 “돈 한 푼 없던 시기에 결혼할 수 있었던 비결”로 “20대 초반부터 독립하여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배운 것”과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가꾸는 삶의 자세를 갖춘 것”이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황선우 작가의 이야기를 비롯해 그의 여러 칼럼을 책 『20대 아빠의 저출산 Talk』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YES24, 알라딘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달러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다뜻한 신앙인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질감 있는 말씨와 쉬운 문체로 전하는 변혁의 메신저”

다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천내산교회)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세계(1)

매일독상

론 1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밧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12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1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15 주 예수와 밧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의 사랑을 들음이니

1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노라

1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18 이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말할 수도 있노라

1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없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1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우리가 바울을 떠올리면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복음의 깃발을 쫓으며 나아갔던 강인하고 지독한 사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사도 안에 그런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 지독한 의리와 사자와 같은 모습이 있다. 그런데 그런 모습과 달리 오늘 편지에서는 굉장히 연약하고 유순한 모습, 양과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도가 사랑을 인하여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대하여 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 죄와 앞에서는 사자와 독수리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서 형제를 대하여서는 양과 같아야 합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거친 세상 앞에서 양과 같이 유순하다가 형제를 대하여 강하고 지독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레몬서에 한 장면인데 빌레몬서는 사도가 주 안에서 형제 된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대부분 신약에 많은 바울의 글들은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그와 달리 한 개인, 빌레몬이라는 형제를 향해서 편지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이 편지가 어떻게 오늘날 신약성경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가르치고 전도한 오네시모라는 한 종 때문에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원래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을 섬기고 있는 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당시

에는 주인의 관계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종은 주인을 하늘처럼 모시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물러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중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잡으면 죽을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지, 자유를 갈망했던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목숨 걸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가 어찌, 어쩌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란 신묘마작 합니다. 깊고 오묘하고 측량하기 힘들니다. 도망쳐 나온 종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가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종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도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필 빌레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금방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도망쳐 나온 종이 자신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

심해서 그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는 데 사실 알고 보니 자기 전도한 빌레몬의 종이었고 거기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알던 어떤 사람과 또다시 어떻게 만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있었을 때 자기 밑에 있는 병사를 못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갔더니 그 병사가 자기 상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에게서 서운하게 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헤어져서라도 다시 어떻게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 5:23 그러므로 예를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5:24 예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를 드리라

5: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들을 풀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하나 그리스도 안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대서는 안 되지만 원망을 하고 원망을 듣게 될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일이 있다면 남겨두지 말고 마음에 맺혀두지 말고 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바이블칼럼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V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즉시 자기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수 없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뿔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바라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군중 속으로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리고 오늘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눅 19:5)

삭개오는 너무도 놀랐을 것이다. "정말 맞구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삭개오는 너무 놀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동안 남의 물건과 돈을 너무 많이 빼앗았습니다.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제 남의 것을 토색할 것을 때나 날마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9)" 이처럼 멸시와 천대와 증오를 받은 죄인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다.

누가복음 8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죄인 중의 죄인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 맥클라렌은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가치 대표적인 죄악의 늪에 빠졌던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던 죄인 중의 죄인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막

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이었다. 그녀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녀를 일곱 귀신 들렸던 죄인 중의 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첩자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자기들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1-3)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

것같이 느껴지는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인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녀의 죄를 사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신 것이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봉사자로 삼아 주셨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읍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첩자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자기들과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1-3)"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

다. 지난날 자기가 저지른 수많은 종류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죄악의 늪에 빠졌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던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도 울고 또 울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일곱 귀신 들렸던 자기에게 먼저 나타나신 사실을 생각하며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눈물의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은 눈물과 사랑의 은혜가 의인요 건강한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죄인에게만 나타났던 것이다. <계속> YEFK 제공

식물로 뭉고치는 질병은 약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

홍천마를 잘 알면 질병이 두렵지 않다

질병과 건강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십니까?

홍천마 진액 골드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극찬한 천마

■ 천마의 종류
국내에 분포하는 천마는 크게 나누어 꽃대색이 적황색인 홍천마와 담황색인 정천마가 있다.

■ 천마의 효능과 신비
천마는 민초(민초)에서 떨어져 나온 마(木)라 하여 마(木)가 되는 증상을 다스린다 하여 하늘 천(天) 마(木)를 더하여 천마(天馬)라 불리었으며 예부터 정음초(正風草)라 불리다가 도 한대, 정음초란 이름 그대로 바르게 풍을 다스리는 풀이라는 뜻이다.

천마는 난초과이며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자연에 따라 날는 있지만 자연산은 5월~6월에 마치 꽃대같이 색이 올라와 작고 흰 꽃을 피우는데 꽃을 피울 때면 그 천마는 이미 숙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천마는 5월~6월에 색을 올리고 7월이면 그 색이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산 천마는 1개월 정도만 색을 볼 수 있기에 채취 기간이 짧아 색이 막 올라오는 시기가 최적인 채취기간이다.

이때 채취하지 않으려면 늦가을에 채취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늦가을에는 색이 없이 발갛게 되어 있으므로 천만 약효는 물론 그 맛을 볼 수 없게 되므로 채취 시기에 매우 주의하여야 하며 채취 시기에 잘 알아보고 채취한다.

천마의 색에는 잎이 붉어지지 않고 꽃대처럼 올라와 있고 흰 꽃을 피우며 그 색도 푸른빛의 색과 분홍색의 홍천마가 있다. 푸른빛을 띠는 것은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으며 기호로 알려진 건초의 종류를 나타낸다.

천마는 천마라 하면 정천마는 적천(赤前) 또는 정음초(正風草)라 하며 정음초는 홍천마와 정천마를 합쳐서 홍천마라 한다.

천마는 천마나 뿌리에 번식하여 증균에 의해 자라는 반 기생 식물이다.

"천마" 는 뇌 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이며 특효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혈압, 중풍, 두통, 불면증, 우울증, 신경성, 위궤양, 간질, 간경화, 당뇨, 시중독, 디스크, 백혈병과 각종 암, 발기부전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옛 문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동의보감)
모든 해(毒)와 어지러운 증세에 천마가 아니면 치료하기 어렵다.(非天藥不)
천마는 두통과 고혈압, 어지럼증에 특효약이라 할 만하다. 어지럼증은 한의학에서 '현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간과 신장의 기운이 손상되어 간의 열이 위로 오르고 몸 안에 열과 양이 서로 충돌하거나 중 속의 수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여 생긴다. 열이 있어지고 속이 메스꺼워 구토가 나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청력이 약해진다. 이때 천마를 사용하면 천마는 간의 열을 내리고 바람과 습기를 없애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목회자분들께는 심검과 봉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선물을 드립니다.

기존가격 (198,000원)에 제품은 기존(1x1=2박스) x 추가 1박스 총 3박스(180포)를 보내 드립니다.

홍천마진액골드는 특산물 3년산으로만 추출제조하여 제품이 아주 탁월합니다.

1SET 가격으로 3SET 드립니다!

1SET
80m 60팩

+

1SET
80m 60팩

+

1SET
80m 60팩

=

3SET
80m 180팩

198,000 + 198,000 + 198,000 = 594,000

공급가격 = ₩198,000 (부가세 별도)

우울마진 확 줄여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직거래마케팅

우울증, 어지럼증, 만성두통, 귀속의 잡소리 등 이것 저것 다해봐도 아무소용 없으신 분께 혈액순환에 탁월한 홍천마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B.T.N

홍천마

라파식품
B.T.N

www.hhma.co.kr
부산 연제구 거제동602-7
TEL:051)853-2678

고 / 객 / 셴 / 터

080-080-2678

국민은행 116601-04-077942

예금주 : 이주영

강지윤 칼럼 주님 바라보기



강지윤 박사

사람은 무엇을 바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을 꾸준히 해왔느냐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그 얼굴에 다양한 그림이 새겨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40세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상이 안 좋은 사람 같아 보였지만 배제시킨 일로 유명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 보면 좋은 인상과 나쁜 인상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배어나 오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 좋은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좋은 인상으로, 마음 속에 나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나쁜 인상으로...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 두 뺨 가득 탐욕이 가득한 사람, 입가에 비웃음을 깨물고 있는 냉소적인 사람, 무뚝뚝한 입매, 사람을 노려보는 차켜 올라간 눈, 웃음이 없는 일자 양의 양다문 입술, 화가 났을 때의 일그러진 표정... 이런 얼굴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그런 표정을

짓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툭툭 막히게 하는데도 그것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종종 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표정 때문에 또다른 사람이 상처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도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만 살아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표정에서 많은 숨겨진 언어들을 읽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천성적으로 얼굴이 굳어 있거나 표정이 어두워서 도저히 고쳐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링컨이 말한 '40세 이후의 얼굴'은, 적어도 4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서서히 자신의 얼굴에 자신의 삶이 새겨지고 인상으로 굳어져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평가되는 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짓고 그 마음이 투영되어 거스를 수 없이 흐르는 것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보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온화함이 얼굴 가득 담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늘 바라본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닮은 듯하다가 금세 악마의 얼굴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헛갈려 합니다. 어느 얼굴이 진짜 얼굴인가...

'큰바위 얼굴'의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한

결같은 얼굴이셨지요. 약자들, 죄인들, 여인들, 어린이들... 그 당시에 천대받던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향한 온화한 표정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투영된 얼굴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파와 시련을 거쳐 오노라 자신의 표정을 살필 여유가 없어서인지 많은 경우 경직되고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는 표정의 설교로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보살피는 능력이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약자를 섬기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는 자신이 큰 자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작은 교회 교인들보다 큰 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은연중에 가지기도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과 온화함이 그 얼굴과 태도에서 진심으로 풍겨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천하고 모자라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앙상담을 하다보면 목사님이나 교회 안의 지도자로 인해 심한 상처를 받은 형제 자매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라고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적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얼굴과 태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나 지도자들은,

저는 신학교를 지망하는 후배 목사후보생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날마다 들여다볼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실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곤 합니다. 살아온 삶의 여정이 힘들어서 그것이 얼굴에 이미 새겨져 버렸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열 번씩 거울을 보고 부드러운 눈매와 미소 띤 표정을 연습하라고 말해 줍니다. 특히 세상의 어두움에 눈이 풀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오래 바라보면 그 어두움이 어느새 얼굴 가득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타인의 눈에 비친 내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애써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얼굴에 '주님 이미지'가 조금씩 새겨지게 되고 그 사람은 60세나 70세 이후에는 모세의 얼굴처럼 빛난 얼굴이 될 것입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건강상식

얼음장 같은 손발, 가볍게 넘기면 큰 일

환자의 진맥을 위해 손을 댔다가 얼음장 같이 차가운 환자의 손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깥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겠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손발이 찬 수족냉증이 원인이다.

"유난히 손끝이 시려요" "발이 차서 양말을 신고 자야 해요"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사람들은 최근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항온동물은 체온이 항상 일정한 범위로 유지된다. 이것은 혈액이 체내 구석구석까지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 인체 특정 부위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경우, 열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부분의 체온이 떨어지며 냉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냉증은 여름에도 손발이 차게 느껴지는 수족냉증이 대표적으로, 심할 때에는 손발이 차다 못해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문제는 이런 냉증이 손발의 불편함에 그

치지 않고, 피로가 심해져 요통이 오기도 하고 냉대하나 생리통이 나타나기도 하며 생리가 불규칙해지며 심한 경우 불임을 야기하기도 한다. 여성에 비해 드물지만 일부 수족냉증인 남성의 경우에는 스테마나가 약해지기도 한다.

혈액순환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행하고 있는 옷차림에 있다. 미니스커트의 경우 하복부에 찬바람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허벅지나 종아리 등 다리 안쪽에는 자궁, 여성생식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노출로 인해 이 부위가 차가워지면서 수족냉증, 불임, 자궁근종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나 스키니진은 하복부를 꽉 조여주어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이로 인해 하복부는 더욱 차가워져 생리불순 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도한 스트레스, 인스턴트 음식이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 실제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자궁근종, 불임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의 체온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손발과 복부가 매우 차가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관리 및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족냉증의 관리 및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 보온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복 착용을 습관화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두꺼운 옷을 한 벌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번 겹쳐 입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가급적 미니스커트나 짧은 팬츠는 입지 않으며, 입어야 한다면 속바지나 보온용 언더웨어를 착용하고 몸을 꽉 조이지 않는 편안한 레깅스와 부츠로 보온성을 높여주도록 한다.

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면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족욕을 해주자. 족욕은 인체의 냉기를 해소

하고 혈행을 촉진시켜 냉증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부종 등에도 도움이 된다. 족욕 시에는 썩은 달인 물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썩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냉증을 개선시켜준다.

또한 날씨가 춥다고 카페인 든 커피를 마시기보다 혈액순환에 좋은 생강대추차나 인삼차와 같은 한방차를 마시는 것도 좋다. 냉증을 해소하는 데에는 운동도 좋은 방법이다.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므로 하체 단련과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깅, 등산, 에어로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준다.

만약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기가 힘들다면 손과 발을 자주 비벼 열을 내주거나 손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의 강도로 하루에 3-4차례, 한번에 60회 이상씩 손뼉을 쳐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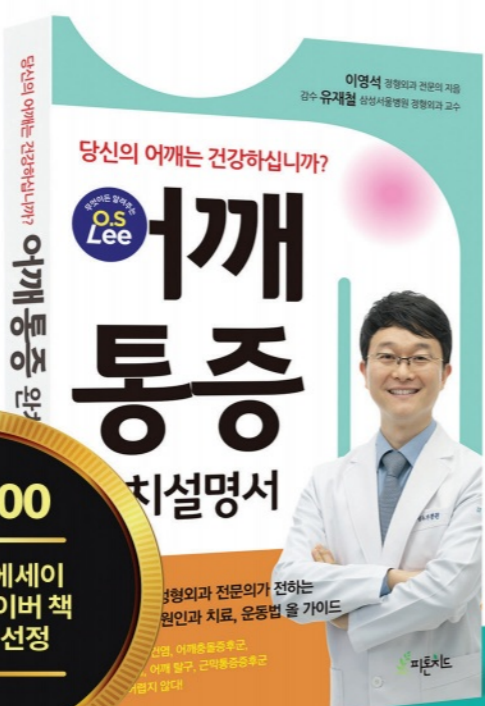
김소형 한의학박사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시간들이 모아지면 어느새 우리의 육신은 끝이라는 정점에 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저서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 마지막 장에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냥 마지막이나 끝이 아니라 인간 됨의 완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덴동산의 범죄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죽

음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고, 이렇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정말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거듭해서 지나갈수록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신앙인답게 사는 길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일 년, 일 년이 모아지다가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죽음이라는 인간 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 90편). 목양의 목표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랑스러운 성도(빌 2:6)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표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수년 전부터 표어가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몸부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경제가 튼튼해지고, 가정과 기업의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행복 중의 하나입니다. 코

로나 시대에 공포스러운 고통의 위협 앞에서 피하고 싶은 우리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자 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4장의 말씀처럼, 사람은 변성해지면 그 변성의 주인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을 기울여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성장과 성숙의 틀에 들어가지 않아도 더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잘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면 서도 우리는 잘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괜찮다고 평가합니다.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이어져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그것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양의 주안점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성지순례

막달라 회당(Magdala Synagogue) (1)

지난 2009년 9월 11일 이스라엘의 일간 신문들은, 1세기 당시의 고대 회당이 막달라에서 발굴된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유대인 회당은 예수님과 바울 및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한 중요한 장소였다. 이번에 발견된 막달라 회당은 갈릴리 지역에서 발견된 1세기 당시의 첫 회당이 되므로 특히 중요하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현장은 다양하다. 갈릴리 호숫가, 산 위, 각 성과 각 촌, 길거리, 때로는 개인의 집, 성전 뜰, 특히 유대인의 회당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복음 증거의 장소를 이용되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으레 회당을 찾으셨고, 규례를 따라 성경을 읽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후에 회당은 전도자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었다(행 13:14, 14:1, 18:4).

복음서에 회당이란 단어는 모두 34회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회당은 모두 10군대이다 (막 1:21, 39, 31, 61, 마 9:35, 눅 4:15, 16, 13:10, 요 6:57, 18:19). 그러나 갈릴리 마을에서 회당이 복음서에 언급된 곳은 나사렛과 가버나움 두 곳뿐이다. 다만 '온 갈릴라... 여러 회당'이란 표현으로 갈릴리의 회당이 있는 마을 이름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들은 역사와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다.



1) 감라 회당 전경 2) 맛사다 회당 전경 3) 헤로디움 회당 전경/두루텐make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이주섭 목사 제공



이집트 파이움의 스키테리아에서 발견된 회당이란 단어가 기록된 가장 오래된 비문. ©두루텐make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이주섭 목사 제공

기까지 사용되었다. 그리고 아테네의 아고라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대리석에 메노라가 새겨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아테네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13-1914년 프랑스 고고학자인 레이몽드 베일(Raymond Weil)은 다윗성을 발굴하면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한 비문(右)을 발견하였다. 데오도투스(Theodotus)는 제사장의 아들로, 도라를 읽고 계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회당을 건축하였다고 비문에 기록되었다. 데오도투스 비문은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에 속한다. <계속>

◆ 이주섭 목사

현)두루텐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과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교회오빠

주님이 예정하신 훈련

모든 군인은 실력 있는 군인이 되기 위하여
파나는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이런 군인이야말로
그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참 좋은 군사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
르심을 받았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대장이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훈련을

사기시답니다
숨이 험악거리라는 고달픔도 필요하구요
함께 겨운 난코스도 필요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아픔도 필요하여
주님의 마음에 차기까지 훈련을 멈추
지 않는답니다

이 훈련은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이며
이 훈련은 주님의 마음에 차기까지잠
니다

그런데 아무나 훈련 시키지 않아요
철저하게 계획하신 그 예정 속에서

조금도 오차가 없는 그 훈련은
인생 최대의 황금기랍니다

바로, 이 훈련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닮아 가는
너무도 중요한 인생에 꼭 필요한 최고
의 코스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져 가고
사랑의 실력자가 되어져 가니
이제는 대장이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며 영광의 길을
달려갑니다 말씀연구소 자료실

향유욕합

청빈에 관한 질문

청빈하여 궁핍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신용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경영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사화에 공헌하지 못한 사람

청빈하여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인간관계를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사회에 공헌하지 못한 사람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람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부패한 영혼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망한 가문이 있습니까?
청빈하여 패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청빈하여 쇠퇴한 종교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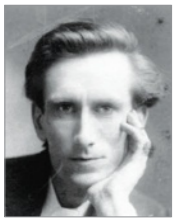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 1: 사역자란 누구인가



복음 선포

모든 사람, 온 인류를 반석 위에 심으라.

온갖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였느니라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져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번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고전 9:11-15). 사역자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고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복음 사역자는 절대로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사역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으려면 세상의 관점에서 하찮은 사람만 만나면서도 천박해지지 않고 죄성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죄성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

자는 스스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요 15:16).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그 길을 가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사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야 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증거를 통해 사람들을 주의 반석 위에 심으신다.

능력의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전 9:16-17) 만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애착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당신이 믿는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기록해보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는 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믿는가? 먼저 당신 자신이 가장 중심 되는 유

일한 사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접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증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속성이다. 그러나 복음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손에 사로잡혀야 한다. 바울의 모든 삶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혔다. 죄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우리 중 몇 명이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에게 해당될지 모르겠다.

그들 스스로 복음 전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미지근하고 게으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는 내가 대단하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자세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외부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들에 대한 자세

“그러나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8-19)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온갖 종

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사역자를 위해 따로 기념비를 세워주지도 않으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는 사역자들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에서 누가 바울을 볼 수 있었는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야 귀중한 존재로 부상되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원하시는 곳에 주의 사역자들을 심으신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모욕을 당하는 시대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우리의 자세는 달라진다. 바울의 온 영혼과 지식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는 그 위대한 사명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 한 가지만을 절대로 놓친 적이 없다(고전 2:2).

부름을 받은 자와 스스로 택한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

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도 상을 받으라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전 9:20-27)

하나님께 의해 선택받지 않은 사역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한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다르게 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사역자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대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사로잡아 온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 아무리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선택하는 사역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한다. 이들은 결국 성경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유익을 보려는 자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 먼저 그를 부수시고 깨뜨리셔서 빚기 시작하신다. 그때 그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를 빚어가신다. 절대로 스스로 사역자가 되려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역자로 부르시면 당장 좇으라. 만일 다른 길로 도망치면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역자로 부르신 후에는 결코 전과 같은 방법으로 당신을 다루시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도 다르게 다루실 것이다.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다루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라.

◆ 오스왈드 챔버스

십대 시절에 찰스 스펠턴의 설교를 듣고 방향전환을 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에든버러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전공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평생 신실한 증인으로 헌신했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 순회설교자로(1906-10), 잉글랜드의 클라팜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수로서(1911-15), 그리고 이집트에서 YMCA 근무(1915-17) 활발하게 사역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솟아난 그의 메시지는 구원의 기쁨과 구령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주었다. 주옥같은 메시지를 엮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비롯해 그의 많은 묵상과 설교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까지도 영적인 감화를 크게 끼치고 있다.

아리마대 요셉, 나는 누구인가?

렘브란트의 성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descent from the cross)를 보며

누가복음 23:44-56, 요한복음 19:38-42, 마태복음 27:57-61, 마가복음 15:42-47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어난 수난절의 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못 박은 비극적이며, 피할 수 없어 운명적이며, 또한 결코 신앙의 눈으로가 아



차수정

니엔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혜가 완성되는 시간,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기록한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눈길을 끄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곧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성화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Descent from the cross)가 있습니다. 그림 속 한 남자의 팔 안엔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의 몸이 안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행여나 놓칠세라, 훼손할세라, 꼭 끌어안은 채 조 심조심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잘 감싸려고 머리 땅 위에 펼쳐 놓은 새하얀 세마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와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인 순간에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최고의 연민으로 돌아 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에 감싼 후 자신이 묻히고자 준비한 새로운 들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70인 산헤드린의 1인이었으나 예수의 죽임에는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던 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으로 예수의 제자였던 자... 성경은 타인이 생각하는 그에 대한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행동의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서지 못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의 시신을 쌀 세마포와 장사지 널 새로운 들무덤을 준비하고, 담대히 만천하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를 사랑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의 배신을 시작으로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부정하

며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져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운 여자들조차도 면발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호산나 환호 속에 유대인의 왕으로 맞이했던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던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주님을 새 들무덤에 모십니다.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참 믿음은 결코 직분이나 명칭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참 믿음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난 무리들과 권력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남

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며 깨닫습니다. 그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나의 속한 곳에서 맡겨진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만약 나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직도 저울로 재고만 있다면, 만약 아직도 소명과 비전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자신 없음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의 길로, 나의 소명의 길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서양화가 안호경 작가, ‘해바라기와 점묘화 작품’으로 개인전

작은 점이 모여 풍경이 되고, 활짝 핀 해바라기는 강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그리고 선과 면으로 만든 독창적 추상화를 구축하여 자유분방한 창작 이념을 감상할 수 있는 서양화가 안호경 작가의 개인전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라메르갤러리에서 “태양의 꽃 해바라기와 춤을” 타이틀로 진행됐다.

캔버스 전체를 가득 메운 노란 해바라기 꽃잎과 씨앗은 생생한 전달력으로 감상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인상적이며, 특히 붉은색 배경의 노란 해바라기는 정열적 분위기로 전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태양의 꽃 해바라기와 춤을” 시리즈 작품들은 태양을 만날 때면 환희에 찬 광경이 새롭고 힘을 얻는 원천이 되어 그 기운을 해바라기 작품에 담아 행복을 찾아가는 매개체로 삼고자 했다. 해바라기는 태양의 꽃이기도 하지만 숭배의 대상 그리고 물질의 풍요이며 동경과 기다림의 상징으로 따뜻한 감성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태양과 해바라기를 동일선상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안호경 작가. ©주최 측 제공

에 놓고 생명의 근원으로 만들었다. 태양은 해바라기가 되어 미소 짓거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포용의 힘으로 위로가 되어 준다.

점을 찍는 붓터치로 이미지를 완성한 점묘화 “그대 그리고 나” 시리즈 작품은 수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사람이 되고 나무가 되었다. 저 멀리 높고 낮은 산 능선의 곡선은 온화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초원지대는 마음

을 정화시키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남녀의 다정한 모습은 감상자가 주인공이 되는 묘한 매력으로 자연의 중심에서 평온을 찾도록 했다. 굵은 선과 면 내부를 채운 채색으로 제작된 추상화 작품은 자연, 사람, 일상 풍경을 독특하게 만들어 작품 속에 빠져들게 한다. 오래 작품 앞에 머물러야 찾을 수 있는 보일 듯 말 듯 한 이미지는 신비롭다.

“태양의 꽃 해바라기와 춤을” 작품으로 개인전을 실시하는 안호경 작가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바라는 힘찬 해바라기 작품으로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었다. 다양한 형태의 해바라기 그림으로 바라보는 재미도 있고, 삶의 기쁨을 예술로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작가는 개인전 16회 진행한 중견 작가로 광진미술 미디어분과위원장, 한국녹색미술회집행위원장, 한민족미술협회 사무총장 등 한국미술 발전에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사진 기자

“아내가 나의 힘”... 한국계 스티븐 연 골든 글로브 손에

제81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LA서 열려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Steven Yeun·41)이 골든 글로브를 품에 안았다. 스티븐 연은 7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힐즈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비프(Beef)’로 리미티드 시리즈(Limited Series)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스티븐 연은 ‘길 위의 연인들’의 맏 보머, ‘데이비 존스 앤 더 식스의 샘 클래플린’, ‘파괴의 존 햄’, ‘화이트 하우스 플라머’의 우디 해럴스, ‘서부의 보안관’ 세 리브스의 데이비드 오엘러위를 제쳤다.

한국인 또는 한국계 배우가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계 한국인 배우가 골든 글로브에서 연기상을 받은 건 샌드라 오와 오영수에 이어 세 번째다.

스티븐 연은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올라 아내를 언급하며 “나의 힘”이라며 공을 돌렸다. 그는 “평소에 나는 그림과 외

로움에 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다”며 “이전 마치 ‘겨울왕국’의 줄거리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감사하다. 난 그저 연민과 사랑, 보호와 호의의 긴 줄을 이어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신교인기도 하다.

한국어 제목은 ‘성난 사람들’인 ‘비프’는 지난해 4월 공개돼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작품으로 꼽혔다. 마트에서 운전 문제로 악연을 맺은 두 남녀가 서로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스티븐 연은 잘살아보기 위해 발악하듯 살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한국계 미국인 ‘대니 조’를 연기했다. 스티븐 연은 이 시리즈에서 기존 이미지와 다른 거친 매력을 보여주며 연기력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 앞서 스티븐 연은 영화 ‘미나리’로 2021년 미국 아카데미 남우주연 부문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배우 스티븐 연 ©wiki

‘비프’는 한국계 미국인 등 아시아계 미국인이 주도해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기도 했다. 제작·연출·극본을 맡은 이사진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역시 한국계 배우인 조셉 리, 데이비드 최 등이 출연했다. 스티븐 연과 함께 호흡을 맞춘 엘리 원은 베트남-중국어 미국인이다. 엘리 원도 같은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손정민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CTS새벽예배-박현승 목사(삼일교회) 40 사복음서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올림 30 TV 설교/하늘빛광성교회 박경수 목사	00 성지가 좋다 30 복음강단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4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00 TV 설교/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 30 주만찬 40 오늘 만나는 QT	00 생방송 명설교 새벽기도회 4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백용현 목사(대전한빛교회) 50 생명의 말씀-이기용 목사(영광제일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더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생더 은누리비전교회 김동국 목사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2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TV 설교/말씀의 능력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년담화
8:00	20 신앙예배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체인지 더 월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20 CBS성서학당	0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30 말씀의 창 - 치유하는교회 한경국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힐링스토리	5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다큐	0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4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1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30 배니기 목사의 생수의 강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00 장영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생더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2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0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40 CBS 뉴스	00 내 삶의 행복 50 배니기 목사의 생수의 강
11:00	00 백세인생 20 7000마라톤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0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교회개혁 길라잡이	00 모두의 거실 50 성경포럼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더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00 TV 설교/부산호산교회 유진소 목사 30 TV 설교/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	20 말씀의 창 - 온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1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3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00 비전설교 중앙성경교회 한기재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박신용 목사(엘바인은누리교회)	00 울포원	30 비전메시지 -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계성지탐험기행 30 다큐 더 로드 50 힐링송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두란노 해외선교회 TIM 30주년 미래선교전략 컨퍼런스	00 TV 설교/수원목양교회 유태민 목사 30 CBS 아카데미 숲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44회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5:00	40 7000마라톤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기	00 [말씀] 김한오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구세군대한본영 30 TV 설교/용인송전교회(권준호 목사)	00 힐링토크 회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6:00	10 신앙예배 2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30 생명의 말씀-황종식 목사(신애교회)	00 말씀의 생더 찬양한교회 임다윗 목사 4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50 [말씀] 이진호 목사(순복음대교회)	00 CBS성서학당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7:00	0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10 말씀의 생더 평택성원교회 박종권 목사 40 말씀의 생더 세계로방주교회 방재길 목사	3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4강 "좋은 양 못된 양" 40 크리스천칼럼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8:00	00 생명의 말씀-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신앙예배 40 백세인생	10 주일예배실황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10 저스트 텐 미닛 (워러브) 20 잊위의 새채 시즌2 5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0 파워인터뷰 30 TV 설교/여의도침례교회 국영호 목사	00 말씀의 창 - 홀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 30 말씀의 창 - 든든한교회 장형희 목사
19:00	0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30 CTS 특집다큐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정맛비	3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TV 설교/당끝까지 복음을(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30 TV 설교/용인비전교회 신우승 목사	00 비전메시지 - 개령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20 글로벌 신앙예배 30 생명의 말씀-김철 목사(송도기나나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더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CGN 월드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다니엘 기도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복음강단 -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05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박종순 목사의 묻고 답하고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 50 CBS TV 뉴스/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나의 삶 나의 노래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10 새롭게 하소서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송태근 목사의 강해설교 30 장영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크레이그 그로웰의 공금합니다, 하나님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00 더 콜링 : 부르심의 소명 20 오늘 만나는 QT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24:00	00 콜링갯 50 하나님의 음성	00 말씀의 생더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	0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40 목사님 공금해요	00 한소망교회 수요저녁성령집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	1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40 CTS 특집다큐	00 말씀의 생더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30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0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생물교회)	00 TV 설교/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4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4강 "좋은 양 못된 양"	00 비전메시지 - 기쁨이교회 조지훈 목사 30 비전메시지 - 더글로리교회 박선관 목사
2:00	40 백세인생	00 명설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30 말씀의 생더 사람살리는교회 라준석 목사	2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TV 설교/송리교회 박규성 목사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3:00	00 장영동 목사의 잘 살아보세 30 Let's talk in English	00 GOODTV 다큐스페셜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00 모두의 거실	00 서재의 재발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서임중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성서학당:골로새서 15강 - 송태근 목사 "외모와 불의" (본문 - 골로새서 3:18-25) 50 CBS 교회소식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공유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